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2월  
석사학위 논문

감정명사 ‘기쁨’ 을 통해 본  
한국어와 프랑스어 비교

조선대학교 대학원

서양학과

조은별



감정명사 ‘기쁨’ 을 통해 본  
한국어와 프랑스어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emotion noun 'joy'  
between Korean and French

2019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서양학과

조은별

감정명사 ‘기쁨’ 을 통해 본  
한국어와 프랑스어 비교

지도교수        임    정    혜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서 양 학 과

조 은 별

## 조은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이 승 권</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임 정 혜</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양 미 애</u> (인)

2018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론 .....	1
제2장 기능동사 .....	3
제1절 기능동사의 정의 .....	3
제2절 기능동사에 관한 선행 연구 .....	9
1. 전통문법에서의 기능동사 .....	9
2. Igor Mel'čuk의 현대 불어의 결합-설명 사전에서의 기능동사 ..	11
3. 어휘-문법에서의 기능동사 .....	13
제3절 기능동사구문의 통사적 특성 .....	18
1. Que 의문문 형성 제약 .....	18
2. 공지칭 관계 형성 .....	20
3. 명사구 형성 가능성 .....	24
4. 이중분석 가능성 .....	26
제3장 감정명사 .....	29
제1절 술어명사 .....	30
제2절 언어학자들에 따른 감정명사의 구분 .....	37
1. Jean-Claude Anscombe .....	37
2. Nelly Flaux와 Danièle Van de Velde .....	38
3. Agnès Tutin, Iva Novakova, Francis Grossman, Cristelle Cavalla	39
제3절 한국어 감정명사 ‘기쁨’ 과 프랑스어 동의어 .....	41
제4장 감정명사의 통사-의미적 특성 .....	49
제1절 감정명사와 결합하는 기능동사 .....	49
제2절 상적 가치를 갖는 기능동사 .....	56
1. 점괄상 .....	56
2. 지속상 .....	60
3. 기동상 .....	66

4. 종결상 .....	70
5. 강도상 .....	73
제3절 신체를 통한 감정 표출 .....	75
1. 경험주의 의지에 따른 감정 표출 .....	77
2. 경험주의 의지와 무관한 감정 표출 .....	79
3. 언어를 통한 감정 표출 .....	84
제4절 감정의 제어 여부 .....	86
제5장 결론 .....	90
참고문헌 .....	92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emotion noun 'joy' between Korean and French

Cho EunByeol

Advisor : Prof. Lim Jung-Hae, Ph.D.

Department of Western studie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Linguistically, the emotion nouns denote major differences in their properties, in spite of having the same properties in terms of human feelings. For example, '기쁨' and '슬픔' in Korean resort to different verbs to make a set expression, although both words are emotion nouns. Similarly, the synonyms of emotion noun '기쁨' combine with different verbs as is indicated below.

(기쁨 + \*슬픔)을 누리다. |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의 눈물을 흘리다.

(\*기쁨 + 슬픔)을 건디다. |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에 (가득) 차다.

The same phenomenon happens in French.

sauter de (joie + \*tristesse). | se mettre en (joie + \*plaisir).

surmonter (\*la joie + la tristesse). | prendre (\*joie + plaisir) à travailler.

Besides, in a dictionary, there is no one-to-one correspondence between a headword and its equivalents. For example, in Prime French-Korean dictionary, '기쁨', '환희' are provided as meanings of the noun 'joie' and '기쁨', '즐거움', '환희', '만족', '쾌락' are provided as meanings of the noun 'plaisir'. As aforementioned, these five Korean words should combine with different verbs.

(기쁨 + \*즐거움 + \*환희 + \*만족 + \*쾌락)(이)(가) 내쫓다.

(기쁨 + 즐거움 + 환희 + \*만족 + 쾌락)(이)(가) 넘치다.

(기쁨 + 즐거움 + 환희 + \*만족 + ?쾌락)에 들뜨다.

In reality, when we speak languages, what is needed is a sentence, not a word. Consequently, we must build a collocation for proper language usage. For this reason, this paper aims to compare emotion nouns synonymous with 'joy' between Korean and French by examining verb-noun collocations. To this end, firstly, the definition, precedent studies and syntactic properties of support verb will be investigated. Secondly, before selecting criteria of the synonyms of emotion noun 'joy', a predicate noun will be defined. Finally, semantic and syntactic properties of the synonyms of emotion noun 'joy' in Korean and French will be described through the verbs co-occurring with them. This method will provide a good means of practicing and using languages.

## 제1장 서론

본 논문은 감정명사와 결합하는 동사들을 토대로 하여 해당 명사의 통사-의미적 특성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감정이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 혹은 인간이 느끼는 ‘기분’이라는 사전적 정의 아래 우리에게 더없이 친숙하지만 이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그들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언어학적 관점에서 감정명사에 접근할 경우 각각의 명사는 결합하는 동사들에 있어 명백한 차이를 보이며 서로 다른 범주를 구성한다. 뿐만 아니라 감정명사는 자신의 동의어(synonyme)로 간주되는 명사들과조차도 공기하는 동사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감정명사들 간에 혹은 해당 감정명사와 이의 동의어들 간에 상이한 범주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한국어에서만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한편 번역 혹은 외국어 학습의 경우 기점언어(langue source(혹은 모국어))와 목표언어(langue cible(혹은 외국어))가 항상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하나 이상의 대응어들은 예상하는 바와 같이 결합하는 동사들이 상이하다. 이때 각각의 대응어들과 공기 관계를 갖는 적절한 어휘를 찾지 못한다면 이내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언어를 구사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해당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에 적합한 언어 collocation<sup>1)</sup>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시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감정명사들 가운데 ‘기쁨’을 선택한 후 이의 동의어를 선정하여 해당 감정명사들이 한국어와 프랑스어에서 각각 보이는 통사-의미적 특성들을 비교 관찰할 것이다. 이때 한국어 감정명사 ‘기쁨’의 동의어들로는 ‘즐거움’, ‘쾌락’, ‘낙’, ‘환희’가 제시될 것이며, 프랑스어 감정명사 ‘joie’의 동의어로는 ‘plaisir’가 제시될 것이다.

1) 언어 collocation은 통사-의미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어휘 간의 공기 관계를 일컫는다(임정혜, 2011).

Les collocations se définissent comme les cooccurrences privilégiées de deux constituants linguistiques entretenant une relation sémantique et syntaxique(cf. Grossmann & Tutin, 2006) (임정혜, 2015).

감정명사는 문장 내에서 의미의 중심을 이루며 문장의 핵tête, 즉 술어로 기능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술어명사nom prédicatif만으로는 문장을 구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술어명사와 결합하여 해당 술어명사가 문장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문법적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동사로서 기능동사verbe support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먼저 제2장 기능동사에서는 기능동사의 정의와 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비롯하여 기능동사구문과 일반 타동사구문을 비교해 봄으로써 기능동사구문이 지니는 보다 일반적인 특성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제3장 감정명사에서는 술어명사와 감정명사의 정의를 시작으로 하여 언어학자들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이는 감정명사의 분류 방식에 대해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이어서 한국어 감정명사 ‘기쁨’ 과 이에 대응하는 프랑스어 감정명사 ‘joie’ 그리고 이들 각각의 동의어를 선정하는 방식을 기술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앞서 선정한 감정명사들과 공기 관계를 이루는 동사들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이러한 동사들은 대표적 기능동사를 포함하여 상적 가치를 갖는 기능동사, 신체를 통한 감정 표출의 동사, 감정의 제어 여부를 나타내는 동사로 구분되어 제시될 것이다. 이처럼 제시된 동사들을 토대로 하여 해당 감정명사들이 각각의 언어 내에서 보이는 통사-의미적 특성들과 두 언어를 대응시켜 봄으로써 드러나는 특성들을 비교 관찰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제시되는 모든 동사는 프랑스어 감정명사 ‘joie’ 와 결합하는 동사들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선정한 어휘들, 즉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 그리고 ‘joie’, ‘plaisir’ 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비교적 빈번히 쓰이는 어휘들로 이는 본 연구의 실용성과 유용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2장 기능동사

### 제1절 기능동사의 정의

기능동사verbe support란 술어의 기능을 지닌 어휘와 결합하여 해당 술어가 문장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즉 해당 술어의 현동화actualisation를 위해 문법적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기능동사는 시제temps, 인칭personne, 수nombre 등과 관련된 문법적 정보들만을 제시할 뿐 그 스스로의 어휘적 의미는 비어 있다. 이처럼 기능동사는 술어의 속성을 지니지 않으므로 문장 내에서 공기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선택 제약restriction de sélection<sup>2)</sup>의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1) Un verbe support est un verbe prädicativement vide (c'est-à-dire sans arguments), dont la fonction est d'apporter à un substantif prädicatif les informations de temps, de personne et de nombre: il <<conjugue>> donc les substantifs prädicatifs (...)

(G. Gross, 1996a, p.155)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 Luc pose une question.
2. Max prend une décision.
3. Paul passe un contrat.
4. Pierre pousse un cri.

위의 예문들 1, 2, 3, 4에서 문장의 핵, 즉 술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소들은 명사들

2) CNRTL에서는 선택 제약restriction de sélection에 대하여 'Limitations portant sur les cooccurrents possibles d'une unité donnée, c'est-à-dire sur les unités avec lesquelles l'unité en question peut se combiner' 라고 기술한다(www.cnrtl.fr).

‘question’, ‘décision’, ‘contrat’, ‘cri’ 이며 해당 술어들이 문장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문법적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소들은 동사들 ‘poser’, ‘prendre’, ‘passer’, ‘pousser’ 이다. 다시 말해, 위의 예문들에서 활용된 동사들 ‘pose’, ‘prend’, ‘passe’, ‘pousse’ 는 ‘현재’, ‘3인칭’, ‘단수’ 라는 정보들을 제시하며 술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명사들 ‘question’, ‘décision’, ‘contrat’, ‘cri’ 가 문장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문법적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때 각각의 문장 내에서 공기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선택 제약의 결정권은 동사가 아닌 명사에 있으며 동시에 해당 동사들의 어휘적 의미는 비어 있다. 한 문장 내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동사를 가리켜 기능동사라 칭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능동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능동사구문과 일반 타동사구문을 비교해 볼 것이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5. Luc a donné une pendule à Max.

6. Luc a donné un démenti à Max.

(G. Gross, 1989, p.34)

위의 예문 5는 문장의 술어로 타동사 ‘donner’ 가 활용된 일반 타동사구문이다. 해당 동사는 통사적 관점에서는 문장의 주어와 성-수가 일치되어 있으며 의미적 관점에서는 ‘Luc’, ‘pendule’, ‘Max’ 를 자신의 논항들로 선택하고 있다. 특히 직접목적보어의 자리에는 ‘pendule’ 와 같은 구체명사만을 취한다는 선택 제약이 발견된다. 반면에 예문 6에서 활용된 동사 ‘donner’ 는 통사적 관점에서는 예문 5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주어와 성-수가 일치되어 있지만 의미적 관점에서는 자신의 논항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직접목적보어의 자리에 구체명사가 아닌 추상명사가 위치함으로써 동사와 명사 간의 선택 제약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문장 내에서 의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요소, 즉 술어는 명사 ‘démenti’ 이며 해당 술어명사와 결합한 동사 ‘donner’ 의 어휘적 의미는 비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신의 논항들에 대한 선택 제약의 결정권은 동사 ‘donner’ 가 아닌 명사 ‘démenti’ 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문 6은 술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명사 ‘démenti’ 와 별다른 어휘적 의미는 갖지 않은 채 해당 술어명사가 문장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문법적 보조 역할만을 담당하는 기능동사 ‘donner’

가 결합한 기능동사구문이다.

기능동사의 정의를 비롯하여 기능동사구문과 일반 타동사구문을 비교해 본 결과 기능동사구문은 외형적 구조상 직접목적보어를 동반한 일반 타동사구문과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직접목적보어의 자리에 위치함과 동시에 술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명사는 그에 대응하는 단일동사의 존재가 확인된다. 즉, 술어명사는 단일동사와 파생 관계에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술어명사가 실현된 기능동사구문은 대응 단일동사구문과 환언 관계paraphrase를 형성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7. Max a de l'admiration pour Luc.

7-1. Max admire Luc.

(J. Labelle, 1977)

8. Max donne un avantage à Luc.

8-1. Max avantage Luc.

(G. Gross, 1987)

위의 예문 7은 술어명사 ‘admiration’ 과 기능동사 ‘avoir’ 가 결합한 기능동사구문이고 예문 7-1은 술어명사 ‘admiration’ 에 대응하는 단일동사 ‘admirer’ 가 활용된 일반 타동사구문이다. 해당 기능동사구문은 직접목적보어의 자리에는 술어명사가, 주동사verbe principal의 자리에는 기능동사가 위치하여 외형적 구조상 일반 타동사구문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직접목적보어의 자리에 위치한 술어명사 ‘admiration’ 은 단일동사 ‘admirer’ 와 파생 관계에 있으며 각각의 두 문장 모두 ‘Max는 Luc을 우러러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어 환언 관계를 형성한다. 마찬가지로 예문 8은 직접목적보어의 자리에는 술어명사 ‘avantage’ 가, 주동사의 자리에는 기능동사 ‘donner’ 가 위치하여 일반 타동사구문과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예문 8의 술어명사 ‘avantage’ 는 예문 8-1의 단일동사 ‘avantager’ 와 파생 관계에 있으며 각각의 두 문장 모두 ‘Max는 Luc에게 혜택을 주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어 환언 관계를 형성한다. 기능동사의 정의를

위해 앞서 제시된 예문들 1, 2, 3, 4에서도 술어명사와 단일동사 간의 파생 관계 그리고 이들이 각각 실현된 두 구문 간의 환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을 통해 확인해 보자.

1-1. Luc pose une question. = (inf. questionner) Luc questionne.

2-1. Max prend une décision. = (inf. décider) Max décide.

3-1. Paul passe un contrat. = (inf. contracter) Paul contracte.

4-1. Pierre pousse un cri. = (inf. crier) Pierre crie.

그러나 술어명사와 단일동사 간의 파생 관계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형성되는 두 구문 간의 환언 관계는 기능동사구문을 판별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동사와 형태적 파생 관계를 갖지 않는 술어들이 더 많은 수를 이룬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9. Pierre fait des misères à Marie.

10. Paul pousse une clameur.

11. Paul a de l'amitié pour Marie.

(M. Gross, 1975, p.129)

위의 예문들 9, 10, 11은 각각 기능동사 ‘faire’, ‘pousser’, ‘avoir’ 와 술어명사 ‘misères’, ‘clameur’, ‘amitié’ 가 결합한 기능동사구문이다. 이처럼 해당 명사들은 기능동사구문의 술어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응하는 단일동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형태적으로는 파생 관계를 갖지만 의미적으로는 상이하여 환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술어명사도 존재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2. Max a donné des instructions aux élèves.

12-1. Max a instruit les élèves.

13. Le juriste a donné une consultation à Luc.

13-1. Le juriste a consulté Luc.

14. Max a donné son avis à Luc.

14-1. Max a avisé Luc (E + de N2).

(G. Gross, 1989, p.133)

위의 예문 12는 술어명사 ‘instructions’ 과 기능동사 ‘donner’ 가 결합한 기능동사구문이고 예문 12-1은 타동사 ‘instruire’ 가 활용된 일반 타동사구문이다. 여기서 술어명사 ‘instructions’ 은 타동사 ‘instruire’ 와 형태적으로는 파생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예문 12는 ‘Max는 학생들에게 지시를 내리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예문 12-1은 ‘Max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어 의미적으로는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해당 두 문장은 환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예문 13의 술어명사 ‘consultation’ 은 예문 13-1의 타동사 ‘consulter’ 와, 그리고 예문 14의 술어명사 ‘avis’ 는 예문 14-1의 타동사 ‘aviser’ 와 각각 형태적으로는 파생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예문 13은 ‘법률가는 Luc에게 의견을 제시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예문 13-1은 ‘법률가는 Luc의 의견을 묻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예문 14는 ‘Max는 Luc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예문 14-1은 ‘Max는 Luc에게 (N2에 대해) 알려주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어 각각 의미적으로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해당 두 문장쌍은 환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한편 기능동사에 대한 어휘적 의미가 문제시된다. 앞서 정의한 것과 같이 ‘어휘적 의미가 비어 있는’ 기능동사는 행위action, 상태état, 사건événement을 나타내는 술어명사와 결합한다. 일반적으로 행위를 나타내는 술어명사는 기능동사 ‘faire’ 와 결합하고 상태는 ‘avoir’ 또는 ‘être’ , 사건은 ‘avoir lieu’ 와 결합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5. Max a fait une marche.



16. Max a un bon caractère.

16-1. Max est en admiration devant cet édifice.

17. La réunion a eu lieu.

실제로 위의 예문들 15~17에서 활용된 기능동사들 ‘faire’, ‘avoir’, ‘être’, ‘avoir lieu’ 는 앞서 정의한 ‘어휘적 의미가 비어 있다’ 라는 기능동사의 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문들만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 단지 위의 네 가지 기능동사만이 모든 술어명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행위, 상태,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명사들은 ‘faire’, ‘avoir’, ‘être’, ‘avoir lieu’ 가 아닌 또 다른 기능동사들과도 결합할 수 있다. 게다가 그 밖의 또 다른 기능동사들은 경우에 따라 그들 나름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어휘적 의미가 비어 있다’ 라는 기능동사의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8. Marie (fait + écrit) une lettre à Paul.

18-1. Paul (fait + dispute) un match avec Luc.

(Giry, 1987, p.21)

19. Max (a + possède + présente) une excellente santé.

19-1. Max (dispose + jouit) d'une excellente santé.

19-2. Max est en excellente santé.

(G. Gross & Vives, 1986, p.18)

위의 예문들 18, 18-1에서 동사 ‘faire’ 를 대신하여 각각 ‘écrire’ 와 ‘disputer’ 를 사용할 경우 통사적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의미적으로도 다소간의 문체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 의미에 있어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어휘적 의미가 비어 있는’ 동사 ‘faire’ 와 다르게 이를 대신하는 동사들 ‘écrire’ 와 ‘disputer’ 는 분명히 그들 나름의 의미

를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음의 예문들 19, 19-1, 19-2에서 ‘어휘적 의미가 비어 있는’ 동사 ‘avoir’ 를 대신하는 동사들 ‘posséder’, ‘présenter’, ‘disposer de’, ‘jouir de’ 는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큰 변화 없이 그들 나름의 의미를 통해 해당 문장들의 의미 표현만을 한층 풍부히 하고 있다. 우리는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기능동사의 정의에 부합하는 동사들 ‘faire’, ‘avoir’, ‘être’, ‘avoir lieu’ 등을 가리켜 표준 기능동사 *verbe support standard*라 칭한다. 더불어 위의 예문들에서와 같이 별다른 통사-의미적 변화 없이 표준 기능동사를 대신하는 기능동사들을 가리켜 기능동사의 변이형 *variante* 혹은 확장형 기능동사 *extension de verbe support*라 칭한다. 이러한 기능동사의 변이형 중에서도 지금까지의 내용과 같이 특히 의미 표현과 관련될 경우 이를 가리켜 문체적 변이형 *variante stylistique*<sup>3)</sup>이라 일컫는다. 이외에도 기동상 *aspect inchoatif*, 지속상 *aspect duratif*, 종결상 *aspect terminatif*과 같이 일종의 상을 나타내는 상적 변이형 *variante aspectuelle*<sup>4)</sup>이 존재한다.

## 제2절 기능동사에 관한 선행 연구

### 1. 전통문법에서의 기능동사

전통문법 *grammaire traditionnelle*에서는 동사만이 주어와 보어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라 파악한다. 따라서 주어 그리고 목적어와 같은 논항들에 대한 선택 제약의 결정권은 오직 동사만이 갖는다고 한정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20. Paul a donné un cahier à Jean.

21. Paul a donné une gifle à Jean.

(G. Gross, 1999, p.70)

3) Nous comprenons par là des verbes qui ont la même interprétation mais qui constituent par rapport au support standard un écart stylistique, qu'il est convenu d'appeler "niveau de langue", toutes des autres propriétés syntaxiques étant constantes(G. Gross, 1989, p.172).

4) Nous appelons variantes aspectuelles les supports qui, par rapport au support standard, traduisent un aspect inchoatif, duratif ou terminatif(G. Gross, 1989, p.177).

전통문법의 관점에서 위의 두 문장은 같은 통사 구조로 간주된다. 예문들 20, 21에서 활용된 동사 ‘donner’ 는 자신의 논항들로 주어 ‘Paul’ , 각각의 직접목적보어 ‘cahier’ 와 ‘gifle’ 그리고 전치사 ‘à’ 를 동반한 간접목적보어 ‘Jean’ 을 선택한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두 문장 모두 동일하게 세 개의 논항을 갖는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예문 20에서 의미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는 동사 ‘donner’ 로 해당 동사는 ‘Paul’ , ‘cahier’ , ‘Jean’ 을 자신의 논항들로 선택하며 스스로가 이 논항들에 대한 선택 제약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예문 21에서 의미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는 명사 ‘gifle’ 로 해당 명사가 자신의 논항들에 대한 선택 제약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해당 문장에서는 명사 ‘gifle’ 가 ‘Paul’ 과 ‘Jean’ 을 자신의 논항들로 선택한다. 그리고 이때 활용된 동사 ‘donner’ 는 기능동사로 별다른 어휘적 의미는 갖지 않은 채 해당 명사 ‘gifle’ 가 문장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문법적 보조 역할만을 담당한다. 따라서 예문 20은 해당 문장의 술어로 타동사 ‘donner’ 가 활용된 일반 타동사구문이고 예문 21은 해당 문장의 술어인 명사 ‘gifle’ 와 기능동사 ‘donner’ 가 결합한 기능동사구문이다. 고로 예문 20과 예문 21은 상이한 통사 구조로 간주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전통문법학자들은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는 실행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러한 형식에 대한 인식은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프랑스의 언어학자들 Dauzat(1947)와 Brunot(1922)는 각각 ‘faire match nul’ 과 ‘faire diligence’ 를 인용하며 동사 ‘faire’ 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은 특수한 동사구와 관련된다. 또 다른 프랑스의 언어학자 Lafaye(1858)는 동사 ‘faire’ 를 통한 환언문 형성에 일종의 체계적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그는 그의 동의어 사전dictionnaire des synonymes에서 다음의 예문들을 언급한다.

caresser ↔ faire des caresses	réfléchir ↔ faire des réflexions
crier ↔ faire des cris	questionner ↔ faire des questions
rêver ↔ faire des rêves	complimenter ↔ faire des compliments

argumenter ↔ faire des arguments      sauter ↔ faire des sauts  
dessiner ↔ faire des dessins      broder ↔ faire des broderies

(Giry-Schneider, 1978, p.6)

Lafaye(1858)는 동사 ‘caresser’ 와 한 부류에 속하는 명사 ‘caresse’ 가 동사 ‘faire’ 와 함께 사용되어 이들이 각각 실현된 두 문장이 환언 관계를 형성할 경우 동사 ‘caresser’ 와 환언문 ‘faire des caresses’ 사이에 일종의 체계적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유사한 관점에서 Brunot(1922)는 ‘travailler’, ‘marquer’, ‘couper’ 등과 같은 생산 동사verbes de production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이러한 동사들과 대응 관계에 있는 명사들 ‘travail’, ‘marque’, ‘coupe’ 가 동사 ‘faire’ 와 결합하여 ‘faire un travail’, ‘faire une marque’, ‘faire une coupe’ 와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한다.

이러한 기능동사에 대한 개념은 문장의 의미를 술어와 논항의 구조로 파악하면서 점차 발전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전통문법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일부 언어학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철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지 속어 동사locution verbale적 표현 또는 관용구expression figée적 표현의 일부로만 취급하고 만다.

## 2. Igor Mel'čuk의 현대 불어의 결합-설명 사전에서의 기능동사

러시아의 언어학자 Igor Mel'čuk은 기존의 언어 사전이 추구하는 기술 방식과 상이한 입장에서 현대 불어의 결합-설명 사전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DEC)이라는 새로운 양식의 언어 사전을 편찬한다. DEC는 I. Mel'čuk의 의미-텍스트 이론théorie Sens-Texte(TST)의 일환으로 어휘 함수fonction lexicale라는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기능동사와 술어명사 간의 결합 관계를 체계적으로 기술한다. 먼저 TST는 생성문법grammaire générative<sup>5)</sup>과 유사한 관점에서 언어란 해당 언어의 문법에 맞는 발화énoncé를 무한히 산출하는

5) 「3. 어휘-문법에서의 기능동사」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잠재적 장치가 아닌 의미sens를 발화로 표현하는 잠재적 장치로 간주한다.<sup>6)</sup> 무엇보다 해당 이론은 ‘하나의 언어란 하나의 규칙 체계système de règles에 해당하며 이러한 체계는 의미의 무한집합 ensemble infini과 텍스트textes의 무한집합 간의 대응correspondance으로 이루어진다’<sup>7)</sup>, ‘이러한 의미와 텍스트 간의 대응은 일종의 논리적 장치로서 제시된 실용적 언어 모형, 즉 의미-텍스트 모형Modèle Sens-Texte(MST)<sup>8)</sup>을 통해 기술되어야 한다’<sup>9)</sup>라는 기본 가정들에 기초하여 전개된다. 위의 가정들을 토대로 하여 TST에서는 해당 언어 가운데 하나의 주어진 의미sens donné와 이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즉 이 의미와 동의 관계synonymie를 갖는 모든 환언문énoncé paraphrastique 간의 결합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의미와 텍스트 간의 대응 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된 MST는 하나의 주어진 의미와 동의 관계를 갖는 모든 환언문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다. 이때 해당 환언문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어휘는 앞서 언급했던 DEC가 제공한다. 따라서 DEC는 한 언어를 기술함에 있어 필수적인 해당 언어의 전체 어휘 요소, 즉 어휘부에 관한 정보를 일관되며 체계적인 방식 하에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I. Mel'čuk이 이용한 어휘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다.

$$(2) f(X) = Y$$

(Mel'čuk, 1984, p.6)

위와 같은 형식 아래 가장 먼저 f는 어휘 함수 FL를, 다음으로 괄호 안의 X는 f의 변수argument라 일컫는 어휘소lexème를,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한 f의 값valeur인 어휘소들의 총체ensemble를 나타낸다. 이때 f는 X에 Y를 연결하는 대응correspondance이라고 표현된다. 이를 종합하자면 어휘 함수 FL란 어휘 함수의 변수인 하나의 어휘소에 해당 어휘소에 대한 어휘 함수의 값인 어휘소들의

6) 이때 의미로부터 표현된 발화를 texte라 일컫는다.

7) Une langue est un système de règles qui décrit la correspondance entre un ensemble infini de sens et un ensemble infini de textes(Igor Mel'čuk, Un modèle linguistique fonctionnel: le modèle Sens-Texte, p.2).

8) 여기서 MST는 논리적 체계를 통해 작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측 가능한 모형modèle calculable이라고 소개된다.

9) La correspondance Sens-Texte doit être décrite par un dispositif logique, ou un système de règles, qui constitue un modèle linguistique fonctionnel: un modèle Sens-Texte(Igor Mel'čuk, Un modèle linguistique fonctionnel: le modèle Sens-Texte, p.2).

총체를 연결하는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휘 함수는 표제 어휘소 lexème vedette와 관련된 제한적 어휘 공기 co-occurrence lexicale restreinte를 다룬다. 이때 제한적 어휘 공기란 한 언어의 어휘부로부터 통제 혹은 제한되는 모든 언어, 즉 고려 대상인 어휘소로부터 제한되는 어휘 결합을 가리킨다. DEC에서는 기능동사구문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언어는 통사-의미적 기준에 의해 규칙적으로 행해지는 결합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각각의 표제어로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I. Mel'čuk은 이를 토대로 하여 전통문법에서 속어 동사적 표현 또는 관용구적 표현의 일부로만 취급했던 기능동사구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는 기능동사구문의 구성 요소들인 기능동사와 술어명사 간의 결합 관계를 예측이 불가능한 제한적 어휘 결합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술어명사가 선택 혹은 제한하는 기능동사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술어명사와 기능동사 간의 결합 관계를 체계적으로 기술한다.

위와 같은 방식 아래 편찬된 DEC는 예컨대 어휘 A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어휘 A가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한 기술 방식을 지향함으로써 매우 생산적인 언어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명백하고 형식적이며 체계적인 특성을 지닌 DEC의 모든 정보는 언어학자를 비롯하여 번역가, 편집자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교육자 및 학습자 등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이며 바로 이러한 점이 DEC가 갖춘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 3. 어휘-문법에서의 기능동사

어휘-문법 lexique-grammaire이란 Maurice Gross를 중심으로 하여 파리 7대학 소속의 언어 및 자료 자동처리연구소 LADL(Laboratoire d'Automatique Documentaire et Linguistique)에서 행해진 언어 연구 방법을 가리키는데 이는 전통문법 그리고 생성문법의 관점과 대조적인 입장을 취한다. 생성문법은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에 대한 반발로 1950년 미국의 언어학자 Avram Noam Chomsky가 제시한 언어 이론이다. N. Chomsky는 한 언어에는 유한한 수의 규칙이 존재하고 이 유한한 수의 규칙을 통해 무한한 수의 문장들이 생성된다고 주장하며 언어가 가진 통사적 규칙성 및 변형 관계를 추상적 모형으로 제시한다. 먼저 그는 그가 제시한 변형의 개념을 위해 하나의 문장을 심층구조 structure profonde와 표층구조 structure de surface로 구분한다. 이때 심층구조란 실제 발화의

기저를 이루는 추상적인 문법 구조를 가리키고, 표층구조란 심층구조에 변형 규칙이 적용되어 표면으로 도출되는 문법 구조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그가 제시하는 변형이란 문장의 심층구조를 표층구조에 이르게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의 M. Gross는 N. Chomsky의 생성문법이 제시하는 추상적이며 제한된 규칙 체계는 모든 어휘부의 규칙성régularité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아울러 그는 한 문장 내에서 규칙적 혹은 불규칙적으로 기능하는 어휘부lexique는 해당 문장과 동시에 혹은 해당 문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그의 입장이 곧 어휘-문법의 시초가 된다. M. Gross의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하여 어휘-문법에서는 언어란 제한된 규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보다 직접적으로 습득되고 기록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특히 어휘부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을 시도한다. 실제로 문장 구조, 즉 통사부syntax는 해당 문장 내에서 실현되는 어휘들 각각의 성격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짐으로써 현대 언어학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어휘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한 어휘-문법은 직접적이며 체계적인 열거와 분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축적함으로써 우리의 예상보다 예외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 어휘부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실행해야 한다고 표명한다. 이를 위해 어휘-문법은 언어에 대한 일종의 분류학taxinomie<sup>10)</sup>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실행된다.

N. Chomsky의 생성문법이 제시하는 규칙의 추상성abstractivité 및 제한성limite과 더불어 이로 부터 발생하는 언어 기술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며 어휘-문법이 지향하는 어휘부의 체계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행해진다. 가장 먼저 M. Gross를 비롯한 어휘-문법의 연구가들은 단어가 아닌 문장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3) Les entrées du lexique ne sont pas des mots, mais des phrases simples.

(M. Gross, 1981, p.48)

10) CNRTL에서는 언어학적 분류학taxinomie에 대하여 ‘Classification d'éléments, de suites d'éléments formant des listes qui permettront, par leurs règles de combinaison, de rendre compte des phrases d'une langue’ 라고 기술한다(www.cnrtl.fr).

그들에 따르면 하나의 어휘에 대한 의미는 그 자체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휘가 문장 내에서 실현됨으로써 정의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각각의 어휘가 지닌 여러 용법들emplois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분석의 최소 층위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르면 동일한 어휘라 할지라도 상이한 문장들에서 실현될 경우 이들은 각기 다른 어휘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때 분석 대상인 문장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문phrase simple으로 하는데 여기서 단문이란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를 포함하여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의미가 명백히 표현되는 최대 확장 구조structure de l'extension maximale를 가리킨다. 단어가 아닌 문장을 대상으로 하여 어휘부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을 시도해야 한다는 이러한 그들의 기본 원칙은 동사 및 형용사 범주를 시작으로 하여 이후 명사 범주를 연구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명사 범주의 연구를 위한 분석의 최소 층위 또한 마찬가지로 단어mot나 구syntagme가 아닌 해당 명사가 실현되는 문장이 선택되어 그 문장 내에서의 관찰이 실행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22. Luc (fait un + est en) voyage.

22-1. Le voyage de Luc.

23. Luc est d'une grande fierté.

23-1. La fierté de Luc.

24. Luc est dans l'angoisse à ce sujet.

24-1. L'angoisse de Luc à ce sujet.

25. Luc a l'autorisation de partir.

25-1. L'autorisation de Luc.

(G. Gross et R. Vivès, 1986, p.6)

위의 예문들 22, 23, 24, 25에서 술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들은 동사들 'faire' ,



‘être’ , ‘avoir’ 가 아닌 명사들 ‘voyage’ , ‘fierté’ , ‘angoisse’ , ‘autorisation’ 이다. 이처럼 문장 내에서 술어로 기능하는 명사, 즉 술어명사에 대한 연구가 어휘-문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술어명사가 실현되는 문장을 선택한 후 그 문장 내에서의 관찰이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휘-문법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명사 범주는 예문들 22-1, 23-1, 24-1, 25-1과 같은 명사구가 아닌 의미의 최대 확장 구조, 즉 예문들 22, 23, 24, 25와 같은 기능동사구문을 분석 대상으로 채택한다. 이에 따라 술어명사가 문장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동사의 자리에 위치하여 별다른 어휘적 의미는 갖지 않은 채 문법적 보조 역할만을 담당하는 동사, 즉 기능동사의 존재는 필수적이게 되며 이로부터 기능동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비로소 시작된다.

M. Gross는 기능동사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Zellig Sabbettai Harris의 operator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Z. S. Harris는 그의 변형이론théorie transformationnelle을 통해 명사화 nominalisation에 대한 기술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그의 변형이론이 추후 어휘-문법의 분석 형식으로 자리 잡는다. 아울러 해당 이론에서의 변형transformation은 어휘-문법의 분석 방법으로 채택된다. 여기서 변형이란 생성문법이 제시한 문장의 심층구조를 표층구조에 이르게 하는 추상적인 변형이 아닌 동일한 요소를 포함하는 두 문장 간의 환언 관계 형성을 위한 변형을 의미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26. He studies eclipses.

26-1. → He makes studies of eclipses.

27. He thinks of a repeat.

27-1. → He has thoughts of a repeat.

28. He looked at it.

28-1. → He took a look at it.

(Harris, 1965, p.545)

위의 예문들 26, 27, 28에 일종의 변형이 작용하여 예문들 26-1, 27-1, 28-1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문장들이 산출된다. 이러한 변형의 결과 각각의 예문들은 서로 의미의 등가équivalence가 이루어져 환언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Z. S. Harris가 자신의 변형이론에서 설명하는 명사화이다. 먼저 예문 26-1에서는 기본 문형인 예문 26의 동사 ‘study’와 형태적 파생 관계를 갖는 명사 ‘studies’가 구성되어 있고 이때 주동사의 자리에는 ‘make’가 위치한다. 마찬가지로 예문들 27-1, 28-1에서도 각각의 기본 문형의 동사들 ‘think’, ‘look’과 형태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명사들 ‘thoughts’, ‘look’이 구성되어 있고 주동사의 자리에는 ‘have’, ‘take’가 위치한다. Z. S. Harris는 이처럼 동사로부터 파생한 명사들 ‘studies’, ‘thoughts’, ‘look’이 문장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동사의 자리에 위치한 동사들 ‘make’, ‘have’, ‘take’를 가리켜 operator U라 칭한다. M. Gross는 위와 같은 operator U의 개념을 어휘-문법에 도입하여 기능동사에 대한 연구를 점차 진전시킨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29. Paul hurle.

29-1. Paul pousse un hurlement.

30. Paul adore Marie.

30-1. Paul a de l'adoration pour Marie.

(M. Gross, 1975, p.113-115)

위의 예문들 29, 30에서 문장의 주된 의미는 동사들 ‘hurle’, ‘adore’에 있다. 반면에 예문들 29-1, 30-1에서는 문장의 주된 의미가 명사들 ‘hurlement’, ‘adoration’에 있다. 여기서 명사들 ‘hurlement’, ‘adoration’은 동사들 ‘hurle’, ‘adore’와 파생 관계에 있으며 이처럼 파생된 명사들이 실현된 예문들은 대응하는 각각의 동사가 활용된 예문들과 환언 관계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 예문들 29, 29-1 그리고 30, 30-1은 서로 의미의 등가가 이루어져 동의 관계를 형성한다. M. Gross는 동사로부터 파생된 명사들 ‘hurlement’, ‘adoration’이 문장의 주된 의미를 도맡음으로써 문장의 핵, 즉 술어의 역할을 담당할 때 해당 술어가 문장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동사의 자리에 위치한 동사들 ‘pousser’, ‘avoir’ 를 가리켜 삽입 조작자 opérateur d'insertion라 칭한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같이 해당 동사들은 별다른 어휘적 의미는 지니지 않은 채 문법적 보조 역할만을 담당한다. 이후 해당 개념은 A. Daladier를 통해 현재 통용되는 기능동사verbe support라는 명칭을 갖게 된다.

이처럼 술어명사의 연구를 위해서는 기능동사에 대한 개념이 필수적이므로 어휘-문법에서의 기능동사는 술어명사 범주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어휘-문법에 대해 종합해 보자면 이는 분석 대상으로 단문을, 분석 형식으로 Z. S. Harris의 변형이론을, 분석 방법으로 Z. S. Harris의 변형을 채택한다고 할 수 있다.

### 제3절 기능동사구문의 통사적 특성

우리는 지금까지 기능동사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기능동사구문과 일반 타동사구문을 비교해 봄으로써 기능동사구문과 관련된 몇 가지 특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자면 가장 먼저 기능동사구문은 외형적 구조상 직접목적보어를 동반한 일반 타동사구문과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 다음으로 직접목적보어의 자리에 위치한 술어명사는 단일동사와 파생 관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술어명사가 실현된 기능동사구문은 해당 단일동사구문과 환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은 기능동사구문에서 발견되는 국부적 현상임에 따라 기능동사구문에 대한 보편적 기준의 확립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두 구문 간의 한층 심화된 비교를 통하여 기능동사구문이 지니는 보다 일반적인 통사적 특성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중 첫 번째로는 기능동사구문에 대한 ‘Que 의문문 형성 제약’, 두 번째로는 문장 전체의 주어와 직접목적보어의 자리에 위치한 명사 간의 ‘공지칭co-référence 관계 형성’, 세 번째로는 기능동사 생략과 관계절 변형을 통한 ‘명사구 형성 가능성’, 마지막으로 c'est~que 분열문 형성과 수동변형의 적용을 통한 ‘이중분석double analyse 가능성’ 이 제시될 것이다.

#### 1. Que 의문문 형성 제약

기능동사구문은 Que 의문문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일반 타동사구문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31. Que donne Luc à Max?

-Une pendule.

\*Un démenti.

(G. Gross, 1987, p.41)

32. Marie a fait une allusion à (Paul + ce marché).

\*Qu'est-ce que Marie a fait à (Paul + ce marché)?

-Une allusion.

33. Paul a des doutes.

\*Qu'est-ce que Paul a?

-Des doutes.

(Giry-Schneider, 1987, p.29-30)

위의 예문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직접목적보어로 ‘pendule’를 취하고 있는 일반 타동사구문은 Que 의문문 형성을 허용하는 반면 술어명사로 ‘démenti’를 취하고 있는 기능동사구문은 Que 의문문 형성에 제약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예문들 32, 33에서도 Que 의문문 형성 제약은 기능동사구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통사적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기능동사구문이 Que 의문문을 형성하는 데 있어 제약을 보이는 이유는 Que 의문사에는 quelque chose가 전제되어 있다는 주지의 사실을 통해 설명된다.<sup>11)</sup> 즉, Que 의문문은 quelque chose를 요구하는데 일반 타동사의 직접목적보어로 동사에 의해 선택 제약을 받는 명사는 문장 내에서 quelque chose로 대체가 가능한

11) 이에 대해 Giry-Schneider(1987)는 Que에 대한 근원source으로 quelque chose가 전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술어명사는 quelque chose로 대체될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송근영, 2000, p.16).

반면 문장의 중심을 이루는 술어명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Que 의문문 형성 제약은 기능동사구문에서의 진정한 술어는 동사가 아닌 명사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거가 모든 기능동사구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34. Qu'a donné l'Etat à cette veuve?

-(Quelque chose + Une pension).

(G. Gross, 1987, p.41)

35. Que fait Jean?

-(Quelque chose + Un voyage).

(J. Giry, 1978, p.120)

위의 예문들 34, 35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능동사구문에서 동사와 결합하는 술어명사가 구체성을 띠며 quelque chose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Que 의문문 형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Que 의문문 형성 제약은 기능동사구문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공통적 특성들 가운데 하나라고는 할 수 있으나 기능동사구문을 구별해 내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 2. 공지칭 관계 형성

기능동사구문은 일반 타동사구문과 달리 문장 전체의 주어와 술어명사의 주어가 반드시 공지칭 관계co-référence를 형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다. 이러한 공지칭 관계는 기능동사구문의 술어명사 뒤에 de Nhum 유형의 명사보어를 삽입해 봄으로써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36. Le loup pousse un hurlement.

36-1. \*Le loup pousse le hurlement de Jean.

37. Marie entend un hurlement.

37-1. Marie entend le hurlement de Jean.

38. Marie a un ascendant pernicieux sur Jean.

38-1. \*Marie a l'ascendant de Lora sur Jean.<sup>12)</sup>

39. Marie redoute un ascendant pernicieux sur Jean.

39-1. Marie redoute l'ascendant de Lora sur Jean.

(한선희, 1990, p.79)

위의 예문들 36, 36-1과 38, 38-1은 술어명사로 각각 ‘hurlement’ 과 ‘ascendant’ 을 취하는 기능동사구문이며 예문들 37, 37-1과 39, 39-1은 비술어명사로 앞선 명사들을 취하는 일반 타동사구문이다. 해당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능동사구문에서는 술어명사 뒤에 de Nhum 유형의 명사보어를 삽입할 경우 비문이 되는 반면 일반 타동사구문은 이와 동일한 유형의 명사보어 삽입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기능동사구문에서는 문장 전체의 주어와 술어명사에 의해 표현된 주어가 일치하며 공지칭 관계가 형성되지만 일반 타동사구문에서는 이러한 공지칭 관계의 형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고로 일반 타동사구문에서는 문장 전체의 주어와 직접목적보어의 자리에 위치한 명사의 주어가 상이한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현상을 술어명사를 위한 소유한정사의 분포 제약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40. Luc a eu (une + \*ma + \*ta) discussion avec Max.<sup>13)</sup>

40-1. Luc a entendu (une + ma + ta) discussion avec Max.

12) 위의 예문에서 ‘de Lora’ 는 ‘~와 동일한 유형의: du même type de qnn’ , 혹은 ‘~대신에: à la place de qnn’ 이라는 의미를 지닐 경우에만 허용이 가능하다(한선희, 1990, p.80).

13) 위의 예문에서 ‘ma’ , ‘ta’ 또한 앞선 예문 38-1의 ‘de Lora’ 와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한선희, 1990, p.81).

(한선혜, 1990, p.81)

위의 예문 40에서 명사 ‘discussion’ 은 Luc과 Max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이므로 Luc은 해당 명사를 통해 표현된 행위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술어명사 ‘discussion’ 은 문장 전체의 주어인 Luc 이외의 다른 주어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기능동사구문에서는 문장 전체의 주어와 술어명사의 주어 사이에 공지칭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예문 40-1에서 문장 전체의 주어인 Luc은 명사 ‘discussion’ 을 통해 표현된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며 주동사인 ‘entendre’ 에 의해 표현되는 또 다른 행위의 주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일반 타동사구문에서는 문장 전체의 주어와 명사 ‘discussion’ 의 주어 사이에 공지칭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문장 내의 명사 ‘discussion’ 은 그 나름의 주어를 표현하는 소유한정사들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지칭 관계의 형성 여부는 기능동사구문과 일반 타동사구문을 구별해 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술어명사는 기능동사의 개념과 불가분리적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통사적 특성들을 통해 기능동사구문을 구성하는 술어명사와 일반 타동사구문을 구성하는 구체명사를 구별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41. Marie fait une erreur.

41-1. \*Marie fait l'erreur de Paul.

41-2. Marie fait (\*mon + \*ton + son) erreur.

42. Marie fait une maison.

42-1. Marie fait la maison de Paul.

42-2. Marie fait (ma + ta + sa) maison.<sup>14)</sup>

14) 위의 예문 41-2에서 소유한정사 ‘son’ 이 허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장 전체의 주어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일종의 의미 중복 효과가 파생될 수 있다. 반면에 예문 42-2에서 소유한정사 ‘sa’ 는 문장 전체의 주어와 공지칭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혹은 제삼자를 지칭할 수도 있다(한선혜, 1990, p.82).

(J. Giry, 1987, p.27)

위의 예문 41은 기능동사구문으로 문장 전체의 주어와 술어명사 ‘erreur’의 행위 주체가 공지칭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예문 41-1에서와 같이 de Nhum 유형의 명사보어를 삽입할 경우 비문이 발생하게 되며 예문 41-2에서의 소유한정사 분포에도 제약이 따르게 된다. 반면에 예문 42는 일반 타동사구문으로 문장 전체의 주어와 명사 ‘maison’의 행위 주체가 반드시 공지칭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문들 42-1, 42-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앞선 예문들에서 행해진 de Nhum 유형의 명사보어 삽입과 소유한정사의 분포를 허용하게 된다.

43. Luc a donné à Max l'autorisation de partir.

43-1. \*Luc a donné à Max (mon + ton) autorisation de partir.

43-2. Luc a donné à Max (mon + ton) autorisation.

43-3. Luc a perdu (mon + ton) autorisation dans le métro.

(G. Gross, 1987, p.39)

위의 예문들 43~43-3에 위치한 명사 ‘autorisation’은 동형이의어homonyme이다. 이는 형태적으로는 위의 네 문장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의미적으로는 예문들 43, 43-1에서와<sup>15)</sup> 43-2, 43-3에서<sup>16)</sup> 각각 상이하게 쓰이고 있다. 먼저 예문들 43, 43-1의 명사 ‘autorisation’은 동사 ‘autoriser’에 대응하는 술어명사로 해당 명사의 행위 주체와 문장 전체의 주어가 반드시 공지칭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예문 43-1은 소유한정사의 분포 제약에 따라 비문이 된다. 반면에 예문들 43-2, 43-3의 명사 ‘autorisation’은 각각의 문장 내에서 공기하는 다른 요소들에 따라 ‘허가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구체명사로 해당 명사의 소유주와 문장 전체의 주어가 반드시 공지칭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한정사의 분포를 허용한다.

Giry-Schneider(1987)는 술어명사의 주어와 문장 전체의 주어 간의 공지칭 관계야말로 술어명사

15) permission과 동의어로서 ‘허가’, ‘허락’을 의미한다.

16) permis와 동의어로서 ‘허가증’을 의미한다.



와 비술어명사를 구별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44. Marie applaudit le faux pas de Paul.

44-1. \*Marie fait le faux pas de Paul.

(Giry-Schneider, 1987, p.27-28)

결과적으로 기능동사구문의 주어는 통사론적 관점에서는 술어명사의 주어로, 형태론적 관점에서는 문장 전체의 주어로 동시에 가능하다. 이러한 공지칭 관계의 형성 여부는 기능동사구문과 일반 타동사구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동사구문들의 일부를 이루는 술어명사와 비술어명사를 구별하는 기준 또한 될 수 있다.

### 3. 명사구 형성 가능성

기능동사구문은 기능동사 축약과 관계절 변형이라는 두 가지 절차를 통해 명사구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형성된 명사구는 의미 변화 없이 본래의 기능동사구문과 동의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일반 타동사구문은 동사를 생략할 경우 의미의 등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만약 일반 타동사구문과 이에 대응하는 명사구 간의 동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일반동사는 수동변형passivation을 통해 과거분사의 형태로 문장 내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45. Luc a un ascendant néfaste sur Max.

45-1. =L'ascendant néfaste de Luc sur Max (...)

46. Luc redoute un ascendant néfaste sur Max.

46-1. ≠L'ascendant néfaste de Luc sur Max (...)

46-2. =L'ascendant néfaste sur Max redouté par Luc (...)

(G. Gross et R. Vivès, 1986, p.15)

위의 예문 45-1은 기능동사 ‘avoir’의 생략을 통해 형성된 명사구로 예문 45와 의미의 등가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일반동사 ‘redouter’를 생략하여 형성된 명사구인 예문 46-1은 예문 46과 동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예문 46-2와 같이 일반동사가 수동변형을 통해 과거분사 ‘redouté’의 형태로 문장 내에 존재한다면 의미의 등가는 이루어진다.

한편 앞서 제시한 절차들을 통해 형성된 명사구는 본래의 기능동사구문이 지닌 모든 보어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47. Paul fait des chinoiseries à Marie.

47-1. =Les chinoiseries que Paul fait à Marie (sont lassantes).

47-2. =Les chinoiseries de Paul à Marie (sont lassantes).

48. Paul fait une maison à Marie.

48-1. =La maison que Paul fait à Marie (est belle).

48-2. ≠\*La maison de Paul à Marie (est belle).

(Giry, 1987, p.28)

기능동사구문인 예문 47은 관계절 변형을 시도한 예문 47-1 그리고 기능동사를 생략한 예문 47-2와 모두 의미의 등가가 이루어지므로 명사구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타동사구문인 예문 48은 관계절 변형을 시도한 예문 48-1과는 의미의 등가가 이루어지지만 일반동사를 생략한 예문 48-2와는 의미의 등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명사구 형성이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기능동사 축약과 관계절 변형을 통한 명사구 형성 가능성은 동의 관계 유지와 해당 보어들의 형태 보존이라는 특성들 아래 기능동사구문과 일반 타동사구문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4. 이중분석 가능성

기능동사구문의 통사적 특성들 가운데 하나는 이중분석 double analyse 가능성이다. Prép N1 유형의 전치사보어를 동반한 기능동사구문은 일반적으로 의미적 중의성 ambiguïté sémantique 없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조로 분석이 가능하다.<sup>17)</sup>

49. NO Vsup (Dét N) (Prép N1)

50. NO Vsup (Dét N Prép N1)

위와 같이 기능동사구문은 문장 내에 위치한 Prép N1에 대해 동사보어로서의 통사적 지위와 명사보어로서의 통사적 지위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 우리는 c'est~que 분열문 형성과 수동변형의 적용이라는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이러한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문장 내에 위치한 보어들의 추출과 관련된 c'est~que 분열문을 기능동사구문과 일반 타동사구문에 각각 적용해 보자.<sup>18)</sup>

51. Luc vient d'avoir une discussion avec Max.

51-1. C'est avec Max que Luc vient d'avoir une discussion.

51-2. C'est une discussion avec Max que Luc vient d'avoir.

52. Luc a entendu une discussion avec Max.

52-1. \*C'est avec Max que Luc a entendu une discussion.

52-2. C'est une discussion avec Max que Luc a entendue.

17) 기능동사구문이 지니는 이중분석 가능성은 통사-의미적 중의성을 지니는 다음 문장에서의 이중분석과 구별되어야 한다.

Max croit ce garçon intelligent.  
-Max croit [ce garçon intelligent].  
-Max croit [ce garçon] [intelligent].

(M. Gross, 1976)

18) c'est~que 분열문 형성과 수동변형의 적용 이외에도 Permutation de longueur 변형, ne~que 제약, 관계절 변형 등이 이와 동일한 현상을 확인시켜 준다(M. Gross, 1976a, p.98-105).

(J. Labelle, 1984, p.167)

기능동사구문인 예문 51은 ‘avec Max’에 대해 동사의 보어로서 통사적 지위를 부여한 예문 51-1과 명사의 보어로서 통사적 지위를 부여한 예문 51-2를 모두 허용함으로써 이중분석이 가능하다. 반면에 일반 타동사구문인 예문 52는 ‘avec Max’에 대해 동사의 보어로서 통사적 지위가 부여된 예문 52-1은 허용하지 않고 명사의 보어로서 통사적 지위가 부여된 예문 52-2만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수동변형을 적용하여 기능동사구문과 일반 타동사구문을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자.

53. Paul a fait une étude sur les Etrusques.

53-1. Une étude a été faite sur les Etrusques par Paul.

53-2. Une étude sur les Etrusques a été faite par Paul.

54. Paul a résumé une étude sur les Etrusques.

54-1. \*Une étude a été résumée sur les Etrusques par Paul.

54-2. Une étude sur les Etrusques a été résumée par Paul.

(J. Giry, 1978b, p.23)

수동변형을 적용한 결과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능동사구문인 예문 53은 예문들 53-1, 53-2를 모두 허용하는 반면 일반 타동사구문인 예문 54는 예문 54-1은 허용하지 않고 예문 54-2만을 허용한다.

결과적으로 이중분석 가능성은 기능동사구문이 지닌 특성들 가운데 하나이자 기능동사구문과 일반 타동사구문을 구별하는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분석 가능성이 Prép N1 유형의 전치사보어를 동반하는 모든 기능동사구문에서 반드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55. Paul a eu une rencontre avec Marie.

55-1. C'est avec Marie que Paul a eu une rencontre.

55-2. \*C'est une rencontre avec Marie que Paul a eue.

56. Paul donne une gifle à Marie.

56-1. C'est à Marie que Paul donne une gifle.

56-2. \*C'est une gifle à Marie que Paul donne.

(J. Giry, 1987, p.57)

위의 예문들 55, 56은 기능동사구문들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시한 절차의 결과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먼저 예문들 55-1, 56-1에서 확인할 수 있듯 Prép N1은 항상 추출이 가능하다. 반면에 예문들 55-2, 56-2와 같이 Dét N Prép N1을 전체적으로 추출하는 것은 해당 구문을 구성하는 기능동사와 술어명사의 어휘적 성격 및 전치사구의 형태에 따라 때로 제약을 보이게 된다.<sup>19)</sup>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기능동사구문은 다음과 같은 내적 구조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57. NO Vsup Npréd (Prép N1)

여기서 Prép N1 유형의 전치사보어가 지니는 통사적 지위는 동사의 보어 혹은 명사의 보어라는 개념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문장의 진정한 서술핵, 즉 술어명사의 두 번째 논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결과적으로 기능동사구문이 전치사구에 대해 동사의 보어로서 통사적 지위를 부여한 첫 번째 구조 [NO Vsup (Dét N) (Prép N1)]은 동사 혹은 형용사를 술어로 취하는 구문에서와 동일한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기능동사구문이 전치사구에 대해 명사의 보어로서 통사적 지위를 부여한 두 번째 구조 [NO Vsup (Dét N Prép N1)] 역시 허용하는 것은 기능동사와 술어명사 간의 통사-어휘적 결합

19) 특히 'donner'가 활용된 기능동사구문에서 à Nhum 유형의 전치사구는 대개 이중분석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다(G. Gross, 1987, p.41-53).

20) 「어휘문법」 내의 기능구문 연구, 강정자, 1996, p.20 인용.

관계에 의존하는 일종의 부대 현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sup>21)</sup>

### 제3장 감정명사

술어prédicat란 한 문장의 핵심 요소로서 해당 문장의 완전한 의미 실현을 위해 논항argument을 필요로 하며 이 논항에 대한 선택 제약을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전통문법에서는 이러한 술어를 주어와 대립 관계에 두고 문장의 의미를 단지 주어와 동사의 결합만으로 파악한다. 그 결과 술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를 오직 동사에만 한정하고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이 술어로 작용하는 경우들을 간과하게 된다. 이후 문장의 의미를 비단 주어와 동사의 합성만이 아닌 술어와 논항의 구조로 파악하면서 현대 언어학에서는 술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가 오직 동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한 바이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58. Paul désire voyager.

59. Paul est désireux de voyager.

60. Paul a le désir de voyager.

(G. Gross, 1996a, p.153)

위의 예문들 58, 59, 60은 의미적 관점에서는 의미의 등가가 이루어져 동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만 통사적 관점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통사적 차이점은 앞서 제시된 술어로서 실현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 즉 다른 문법 범주들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예문 58에서는 동사 ‘désirer’가, 다음으로 예문 59에서는 형용사 ‘désireux’가 마지막으로 예문 60에서는 명사 ‘désir’가 각각의 문장 내에서 술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술어는 동사, 형용사, 명사와 같이 여러 문법 범주들을 통해 문장 내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이 술어들에 해당하는 각각의 문법 범주는 해당 문장 내에서 그들 나름의 논항을 취할 수 있다. 여기서 술어가 선택 제약을 결정한 논항들은 주어와 보어이며 다음과 같은 논항도식schéma d'arguments을

21) 불어 기능동사구문 연구, 한선혜, 1990, p.98 인용.

형성한다.

61. Prédicat (argument1, argument2)

실제로 위의 예문들 58, 59, 60에서 술어로서 실현된 각각의 문법 범주들, 즉 동사 ‘désirer’, 형용사 ‘désireux’, 명사 ‘désir’는 해당 문장 내에서 각각 두 개의 논항을 취하며 모두 동일한 논항도식을 형성한다. 예문 61과 같은 논항도식에 따라 이 술어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58-1. désirer (Paul, voyager)

59-1. désireux (Paul, voyager)

60-1. désir (Paul, voyager)

이처럼 동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와 명사 또한 해당 문장의 핵심 요소로서 그들의 논항에 대한 선택 제약을 결정하며 술어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우리는 문장 내에서 술어로서 실현 가능한 문법 범주들 가운데 명사를 선택하여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해 볼 것이다. 가장 먼저 앞선 예문들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하여 술어명사에 대해 정의해 보자.

제1절 술어명사

술어명사 nom prédicatif란 문장의 핵심 요소인 술어가 명사로써 실현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명사는 술어에 해당하는 다른 문법 범주들과 마찬가지로 논항을 필요로 하며 이 논항에 대한 선택 제약의 결정권을 갖는다. 그러나 술어명사는 동사와 다르게 시제 temps, 인칭 personne, 수 nombre 등과 관련된 문법적 정보들을 제시하지 못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 62. Luc fait une analyse.
- 63. Max fait une proposition.
- 64. Paul fait un voyage.
- 65. Pierre fait un saut.

위의 예문들 62, 63, 64, 65에 위치한 명사들 ‘analyse’, ‘proposition’, ‘voyage’, ‘saut’ 는 문장 내에서 의미상 술어로 기능하지만 해당 명사들만을 통해서도 시제, 인칭, 수 등과 관련된 문법적 정보들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술어명사가 문장 차원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술어명사를 대신하여 문법적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형적인 문법 범주, 즉 동사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 위의 예문들에서도 시제, 인칭, 수 등과 관련된 문법적 정보들은 기능동사 ‘faire’ 가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각의 예문에서 활용된 동사 ‘fait’ 는 ‘현재’, ‘3인칭’, ‘단수’ 라는 정보들을 제시하며 별다른 어휘적 의미는 갖지 않은 채 해당 술어들이 문장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문법적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능동사의 문법적 보조를 통해 술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명사가 문장 내에서 실현될 때 해당 명사를 가리켜 술어명사라 칭한다.

이러한 술어명사들 중에서도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 즉 감정명사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인간이 느끼는 일종의 ‘기분’ 혹은 ‘심경’ 을 나타내는 명사라는 보편적 특성을 지니지만 이는 주관적이고, 다양하며,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명사의 범위를 명백히 한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실제로 우리는 직관에 의존할 경우 큰 어려움 없이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를 구별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명사가 한 언어 내에서 어떠한 특성을 토대로 하여 기능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시도할 경우, 즉 언어학적 관점에서 감정명사에 접근할 경우 이들은 상호 간에 매우 상이한 범주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 66. (기쁨 + \*슬픔)을 누리다.
- 67. (\*기쁨 + 슬픔)을 견디다.



위의 예문들 66, 67에서 확인할 수 있듯 명사 ‘기쁨’은 동사 ‘누리다’와의 결합은 가능하지만 동사 ‘견디다’와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명사 ‘슬픔’은 동사 ‘누리다’와의 결합은 불가능하지만 동사 ‘견디다’와의 결합은 가능하다.

	기쁨	슬픔
누리다	+	-
견디다	-	+

이처럼 ‘기쁨’과 ‘슬픔’은 모두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결합하는 동사의 선택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어에서뿐만 아니라 프랑스어에서도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68. Paul saute de (joie + \*tristesse).

69. Paul surmonte (\*la joie + la tristesse).

위의 예문들 68, 69에서 확인할 수 있듯 명사 ‘joie’는 동사 ‘sauter’와의 결합은 가능하지만 동사 ‘surmonter’와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명사 ‘tristesse’는 동사 ‘sauter’와의 결합은 불가능하지만 동사 ‘surmonter’와의 결합은 가능하다.

	joie	tristesse
NO sauter de Nsent <sup>22)</sup>	+	-
NO surmonter Dét <sup>23)</sup> Nsent	-	+

22) Nsent은 감정명사를 가리킨다.

23) Dét는 한정사를 가리키는 Déterminant의 약자이다.

이처럼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어에서도 각각의 어휘가 감정명사의 범주에 속할지라도 해당 어휘와 공기 관계를 이루는 동사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는 한 언어 내에서 동의어로 간주되는 어휘들 사이에서도 이와 동일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70. (기쁨 + \*즐거움 + 반가움 + \*쾌락 + \*낙 + ?열락 + 환희 + ?희열)의 눈물을 흘리다.

71. (기쁨 + 즐거움 + \*반가움 + 쾌락 + \*낙 + \*열락 + 환희 + 희열)에 (가득) 차다.

한국어 감정명사 ‘기쁨’은 ‘즐거움’, ‘반가움’, ‘쾌락’, ‘낙’, ‘열락’, ‘환희’, ‘희열’과 동의 관계를 갖는다.<sup>24)</sup> 그러나 기쁨 또는 슬픔 따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동사적 표현 ‘눈물을 흘리다’는 ‘기쁨’의 동의어들 가운데 ‘반가움’, ‘환희’와의 결합만이 자연스럽다. 다음으로 ‘감정이나 기운 따위가 가득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sup>25)</sup> ‘차다’는 ‘즐거움’, ‘쾌락’, ‘환희’, ‘희열’과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반면 ‘반가움’, ‘낙’, ‘열락’과의 결합은 부자연스럽다.

	기쁨	즐거움	반가움	쾌락	낙	열락	환희	희열
눈물을 흘리다	+	-	+	-	-	-	+	-
(가득) 차다	+	+	-	+	-	-	+	+

이처럼 ‘즐거움’, ‘반가움’, ‘쾌락’, ‘낙’, ‘열락’, ‘환희’, ‘희열’은 ‘기쁨’의 동의어들로서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공기 관계를 이루는 동사는 ‘기쁨’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프랑스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24) (주)낱말-우리말 유의어 사전에서는 기쁨의 동의어들로서 ‘즐거움’, ‘반가움’, ‘쾌락’, ‘낙’, ‘열락’, ‘환희’, ‘희열’을 제시하고 있다.

25) 해당 동사를 포함하여 앞으로 제시되는 동사들의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 출처.

72. Cela me met en (joie + \*plaisir).

73. Il prend (\*joie + plaisir) à travailler.

프랑스어 감정명사 ‘joie’ 는 ‘plaisir’ 와 동의 관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se mettre en’ 은 ‘joie’ 와의 결합은 가능한 데 반하여 ‘plaisir’ 와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동사 ‘prendre’ 는 ‘joie’ 와의 결합은 불가능하지만 ‘plaisir’ 와는 ‘prendre plaisir à’ 의 형태를 통해 실현이 가능하다.

	joie	plaisir
NO se mettre en Nsent	+	-
NO prendre Nsent	-	+

이처럼 각각의 언어 내에서 비록 감정명사라 칭해지는 명사들일지라도 해당 명사들과 공기 관계를 갖는 어휘들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한 언어 내의 동의어들 간에서조차 공기 관계를 이루는 어휘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게다가 하나의 언어를 또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경우 기점언어 langue source와 목표언어 langue cible가 항상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제시된 하나 이상의 어휘들은 예상한 바와 같이 공기 관계를 갖는 어휘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점언어에 대하여 제시된 여러 목표언어는 저마다 나름의 고유한 언어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라임 불한사전에서는 ‘joie’ 에 대한 의미들로서 ‘기쁨’ 과 ‘환희’ 를, ‘plaisir’ 에 대한 의미들로서 ‘기쁨’ , ‘즐거움’ , ‘환희’ , ‘만족’ , ‘쾌락’ 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때 제시된 어휘들은 하나의 기점언어에서 제시된 목표언어들임에도 불구하고 결합하는 동사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74. (기쁨 + \*즐거움 + \*환희 + \*만족 + \*쾌락)(이)(가) 내쫓다.

75. (기쁨 + 즐거움 + 환희 + \*만족 + 쾌락)(이)(가) 넘치다.

76. (기쁨 + 즐거움 + 환희 + \*만족 + ?쾌락)에 들뜨다.

위의 예문들 74, 75, 76에서 확인할 수 있듯 ‘느낌이나 기운이 힘차게 생겨 나오다’ 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내솟다’ 는 ‘기쁨’, ‘즐거움’, ‘환희’, ‘만족’, ‘쾌락’ 가운데 ‘기쁨’ 과의 결합만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느낌이나 기운이 정도를 벗어나도록 강하게 일어나다’ 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 ‘넘치다’ 는 ‘만족’ 을 제외한 나머지 명사들과의 결합만이 자연스럽다. 마지막으로 ‘마음이나 분위기가 가라앉지 아니하고 조금 흥분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들뜨다’ 는 ‘기쁨’, ‘즐거움’, ‘환희’ 와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데 반하여 ‘만족’, ‘쾌락’ 과의 결합은 부자연스럽다.

	기쁨	즐거움	환희	만족	쾌락
내솟다	+	-	-	-	-
넘치다	+	+	+	-	+
들뜨다	+	+	+	-	-

번역을 포함하여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기점언어(혹은 모국어)의 어휘에 대응하는 목표언어(혹은 외국어)의 어휘를 찾는 일은 사실상 사전을 참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사전에서 찾은 어휘를 활용하기 위해 또 다른 어휘와의 결합이 요구될 때에는 앞선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전이 제시하는 어휘들과 결합하는 어휘는 제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어휘와 결합하는 적절한 어휘를 찾지 못한다면 이내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77. Il exprime (sa joie + son plaisir).

→ 그는 그의 (기쁨 + 즐거움 + 환희 + ?만족 + \*쾌락)(을)(를) 표현한다.

78. Il partage (sa joie + son plaisir).

→ 그는 그의 (기쁨 + 즐거움 + 환희 + \*만족 + \*쾌락)(을)(를) 나눈다.

79. Il ne peut pas cacher (sa joie + son plaisir).

→ 그는 그의 (기쁨 + 즐거움 + 환희 + \*만족 + \*쾌락)(을)(를) 감추지 못한다.

위의 예문들 77, 78, 79에서 확인할 수 있듯 동사 ‘exprimer’는 ‘표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joie’, ‘plaisir’와 공기 관계를 이루지만 ‘joie’와 ‘plaisir’가 지닌 의미들, 즉 ‘기쁨’, ‘즐거움’, ‘환희’, ‘만족’, ‘쾌락’ 가운데 ‘기쁨’, ‘즐거움’, ‘환희’와의 결합만이 자연스럽다. 다음으로 동사들 ‘partager’, ‘ne pas pouvoir cacher’는 각각 ‘나누다’, ‘감추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joie’, ‘plaisir’와 공기 관계를 갖지만 이들 모두 ‘기쁨’, ‘즐거움’, ‘환희’와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데 반하여 ‘만족’, ‘쾌락’과의 결합은 부자연스럽다.

	joie	plaisir			
exprimer	+	+			
partager	+	+			
ne pas pouvoir cacher	+	+			
	기쁨	즐거움	환희	만족	쾌락
표현하다	+	+	+	-	-
나누다	+	+	+	-	-
감추지 못하다	+	+	+	-	-

실제로 우리는 언어를 구사할 때 오로지 어떤 어휘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해당 어휘가 활용되어 완결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즉, 문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휘 대 어휘의 대응이 아닌 각각의 어휘에 적합한 언어를 구축하는 일이

다.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어 감정명사 ‘기쁨’의 동의어와 ‘기쁨’에 대응하는 프랑스어 감정명사 ‘joie’<sup>26)</sup>의 동의어를 선정할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선정된 이들 각각의 어휘가 갖는 고유한 동사 언어들을 토대로 하여 해당 감정명사들이 각각의 언어 내에서 보이는 통사-의미적 특성들과 두 언어를 대응시켜 봄으로써 드러나는 특성들을 비교 관찰하고자 한다. 또한 여기서 제시되는 모든 동사는 프랑스어 감정명사 ‘joie’와 결합하는 동사들에 기준함을 거듭 밝힌다.

우리는 해당 감정명사들의 특성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언어학자들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이는 감정명사의 분류 방식에 대해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 제2절 언어학자들에 따른 감정명사의 구분

‘joie’를 포함하여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 즉 감정명사는 언어학자들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분류된다. 그들은 대체로 ‘sentiment’, ‘émotion’ 그리고 ‘affect’ 등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여 감정명사의 의미 범주를 세분화한다. 실제로 해당 어휘들은 모두 ‘감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닌 다의성 polysémie으로 인해 저마다 각기 다른 단 하나의 범주에만 국한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의미 범주는 개별적으로 한정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언어학자들의 분류 방식과 같이 대개 서로 관련되어 정의된다. 우리는 몇몇 언어학자들이 제시한 분류 방식에 따라 프랑스어 감정명사 ‘joie’ 그리고 한국어 감정명사 ‘기쁨’이 속한 범주와 해당 범주의 특성들에 대해 먼저 알아볼 것이다.

### 1. Jean-Claude Anscombre(1995, 1996)

J.-C. Anscombre는 심리적 활동과 관련된 명사들을 하위 범주화 sous-catégorisation 하는데, 이

26) ‘기쁨’에 대응하는 프랑스어로 ‘joie’를 선택하게 된 과정은 「제3절 한국어 감정명사 ‘기쁨’과 프랑스어 동의어」에서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때 그는 해당 하위 범주들 중 하나로 감정명사 *noms de sentiment*를 제시한다. 또한 그는 일종의 정신 상태의 원인에 따라 앞서 제시한 감정명사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중 첫 번째는 ‘*noms de sentiment <<endogènes>>*’이다. 이 경우 문제시되는 감정의 원인은 개인의 내부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개인 스스로가 해당 감정의 원인인 것이다. 예를 들어 ‘*amour*’와 같은 감정이 해당 부류에 속한다. 다음으로 그는 ‘*noms de sentiment <<exogènes>>*’를 제시한다. 이 경우 문제시되는 감정은 외적 요인으로부터 유발된다. 즉, 해당 감정의 원인은 개인의 내부가 아닌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frayeur*’와 같은 감정이 해당 부류에 속한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joie*’와 ‘기쁨’은 해당 감정들의 원인이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므로 위의 두 가지 유형 가운데 ‘*noms de sentiment <<exogènes>>*’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Nelly Flaux와 Danièle Van de Velde(2000)

N. Flaux와 D. Van de Velde는 가장 먼저 ‘*noms abstraits intensifs*’와 ‘*noms abstraits extensifs*’를 구분하는데, 우리는 이때 제시된 ‘*noms abstraits intensifs*’의 몇 가지 특성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 첫 번째로 ‘*noms abstraits intensifs*’는 시적 확장 *extension temporelle*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은 ‘*beaucoup de joie*’와 ‘*un peu de joie*’를 예로 들어 설명된다. 이 경우 ‘*beaucoup de joie*’는 ‘*un peu de joie*’에 비해 시간적으로 더 많은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un peu de joie*’가 ‘*beaucoup de joie*’에 비해 더 적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 또한 아니다. 이처럼 ‘*beaucoup*’와 ‘*peu*’는 인간의 정신 혹은 심리와 관련된 명사와 사용될 경우 그들의 통상적 의미를 잃고 해당 명사의 강도 *intensité*를 표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beaucoup de joie*’와 ‘*un peu de joie*’는 ‘*joie*’라는 감정에 대한 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닌 강도의 높고 낮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noms abstraits intensifs*’는 기능동사들 ‘*avoir*’, ‘*éprouver*’, ‘*ressentir*’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들을 지닌 ‘*noms abstraits intensifs*’는 위의 저자들에 의해 또다시 세 가지 부류 즉, ‘*noms de qualités*’, ‘*noms d'affects*’, ‘*noms d'états*’로 구분된다. 이들 가운데 ‘*noms*

d'états' 는 'états psychologiques' 와 'états physiques' 로 나뉘며 'noms d'affects' 는 'noms de sentiments' 과 'noms d'émotions' 으로 나뉜다. 여기서 'sentiments' 과 'émotions' 은 경험주 affecté로서 주어를 제시하며 이들 모두 해당 주어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 둘은 일종의 감정이 향하는 대상, 즉 objet의 유무에 따라서는 확연히 구별된다. 'sentiments' 과 같은 경우 두 번째 행위주 deuxième actant로서 대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반면 'émotions' 의 경우 이러한 대상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émotions' 은 'sentiments' 과 달리 어떤 외부적 사건으로부터 야기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amour' 와 같은 감정이 'sentiment' 에 속하며 'peur' 와 같은 감정이 'émotion' 에 속한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joie' 와 '기쁨' 은 두 번째 행위주로서 대상의 존재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외부적 사건 혹은 제3자를 통해 생성되는 감정이므로 'noms d'émotions' 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Agnès Tutin, Iva Novakova, Francis Grossman, Cristelle Cavalla(2006)

A. Tutin, I. Novakova, F. Grossman, C. Cavalla는 다음의 특성들을 지닌 명사를 가리켜 'N\_affect(noms d'affect)' 라 칭한다. 가장 먼저 'N\_affect' 에 해당되는 명사는 기능동사들 'avoir' , 'éprouver' , 'ressentir' 와의 결합이 가능하며 명사 'sentiment (de)' 과 공기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또한 해당 명사는 신체적 과정보다는 정신적 과정과 관계되며 동작주 agent 든 경험주 expérienceur 든 간에 인간 행위주 actant humain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위와 같은 특성들을 지닌 'N\_affect' 는 세 가지 부류 즉, 'N\_sent(noms de sentiment)' , 'N\_émotion(noms d'émotion)' , 'N\_état\_affect(noms d'état affectif)' 로 거듭 구분되는데, 이들은 각각 행위주 적 구조 structure actancielle와 어휘 결합 combinatoire lexicale을 토대로 하여 기술된다.

첫 번째로 'N\_sent' 은 상호 간의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으로 두 명의 행위주를 필요로 하며 이 두 명의 행위주는 반드시 표면화되지 않더라도 항상 잠재되어 있다. 이때 첫 번째 행위주는 능동적이며 감정 생성에 직접 참여함에 따라 경험주가 아닌 동작주이고 두 번째 행위주는 원인



cause이 아닌 대상objet이다. 상적 관점plan aspectuel에서 ‘N\_sent’은 비교적 지속적duratif이며 시작début, 연속continuation, 끝fin을 포함하는 단계적phasique 특성을 지닌다.

80. Max a de l'affection pour Marie.

더불어 해당 명사는 감정의 제어contrôle와 신체적 표출manifestation physique을 나타내는 동사와의 결합이 드물다. 또한 사역동사verbe causatif와의 결합까지도 흔치 않은데 이는 감정이 향하는 두 번째 행위주가 앞서 언급했듯 원인이 아닌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해 설명된다. 그러나 ‘N\_sent’은 언어적 표출verbalisation을 나타내는 동사와의 결합은 매우 빈번하다. 이때 해당 동사는 표현적expressif이 아닌 소통적communicatif 특성을 지닌다. 이를테면 ‘affection’, ‘amitié’와 같은 명사들이 해당 부류에 속한다.

81. Max dit son amitié.

두 번째로 ‘N\_émotion’은 외부적 사건에 대한 일종의 반응réaction으로 간주된다. ‘N\_émotion’의 첫 번째 행위주는 동작주가 아닌 경험주이고 두 번째 행위주는 임의적facultatif이다. 즉, ‘N\_sent’과 달리 두 번째 행위주가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번째 행위주가 겉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대상이 아닌 원인이며 ‘devant’, ‘du fait de’, ‘à cause de’와 함께 표면화된다. 상적 관점에서 ‘N\_émotion’은 비교적 점괄적ponctuel이며 단계적 양상을 띠는 경우 특히 기동상aspect inchoatif과 관련된 표현이 풍부하다.

82. Max éprouve de l'angoisse (devant l'inconnu).

더불어 해당 명사는 감정의 제어와 신체적 표출을 나타내는 동사 및 사역동사와의 결합이 빈번하다. 또한 이들과 결합하는 언어적 표출의 동사는 소통적이기보다는 표현적인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surprise’, ‘peur’, ‘angoisse’와 같은 명사들이 해당 부류에 속한다.

- 83. Max surmonte sa peur .
- 84. Max tremble de peur .
- 85. Max fait peur à Marie.
- 86. Max hurle de peur .

세 번째로 ‘N\_état\_affect’ 는 하나 또는 두 명의 행위주를 갖는다. 이때 첫 번째 행위주는 인간으로 경험주이다. 두 번째 행위주는 임의적이거나 이가 실현될 경우 원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상적 관점에서 ‘N\_état\_affect’ 는 비교적 지속적인데 이러한 지속적 성격으로 인해 감정의 제어를 나타내는 동사와의 결합은 어렵게 된다. 더불어 해당 명사는 신체적 표출을 나타내는 동사와의 결합 또한 쉽지 않으며 이가 원인과 반드시 관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역동사와의 결합까지도 어렵다. 예컨대 ‘bonheur’ , ‘ennui’ , ‘solitude’ 와 같은 명사들이 해당 부류에 속한다.

- 87. Max vit dans la solitude.

위의 저자들에 따라 분류된 ‘N\_sent’ , ‘N\_émotion’ , ‘N\_état\_affect’의 특성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joie’ 와 ‘기쁨’ 은 ‘N\_émotion’ 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3절 한국어 감정명사 ‘기쁨’ 과 프랑스어 동의어

(주)날말-우리말 유의어 사전에서는 ‘기쁨’ 의 동의어들로서 ‘즐거움’ , ‘반가움’ , ‘쾌락’ , ‘낙’ , ‘열락’ , ‘환희’ , ‘희열’ 로 총 7가지의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처럼 제시된 7가지 어휘 각각의 동의어를 재차 살펴보고, 조사된 동의어들의 동의어를 또다시 살펴보는 방식의 작업을 거듭했는데, 이러한 작업은 조사된 동의어들의 의미가 ‘기쁨’ 과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진행되었다. 그다음으로는 위의 작업을 통해 얻어진 모든 어휘 가운데 등장하는 빈도수가 가장 높으며 애당초 기준이 되었던 ‘기쁨’ 의 의미를 여전히 잘 내포하고 있는 4가지의 어휘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 를 선택하였고, 이들을 곧 ‘기쁨’ 의 동의어로 선정하였

다. 예를 들어 조사된 약 80가지의 어휘 가운데 등장하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어휘는 ‘이익(15)’ 이었고, 그다음으로는 ‘평안(12)’, ‘맛(9)’, ‘흥미(9)’ 가 뒤따랐으나 해당 어휘들의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들의 의미는 ‘기쁨’ 이 나타내는 의미와 적잖이 멀어지기 때문에 동의어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표준국어대사전】**

- 이익(15):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
- 평안(12):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 맛(9): 제격으로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기분.<sup>27)</sup>
- 흥미(9): 흥을 느끼는 재미.

이외에도 ‘보람(7)’, ‘오락(7)’, ‘안전(7)’, ‘수익(6)’, ‘구미(6)’, ‘편안(6)’ 이 높은 빈도수로 등장하였지만 해당 어휘들 역시 의미적으로는 ‘기쁨’ 과 상당히 멀어지므로 동의어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

- 보람(7):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또는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일의 가치.<sup>28)</sup>

---

27) <맛>

1. 음식 따위를 혀에 닿 때에 느끼는 감각.
2.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느끼는 기분.
3. 제격으로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기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맛’ 에 대하여 위의 세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세 번째 의미가 ‘기쁨’ 의 동의어로 선정되기에 가장 적합한 의미라고 판단된다.

28) <보람>

1. 약간 드러나 보이는 표적.
2. 다른 물건과 구별하거나 잊지 않기 위하여 표를 해둠. 또는 그런 표적.
3.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또는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 오락(7): 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
- 안전(7):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
- 수익(6): 이익을 거두어들임. 또는 그 이익.
- 구미(6):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느끼는 맛에 대한 감각.
- 편안(6): 편하고 걱정 없이 좋음.

한편 조사된 어휘들 가운데 ‘낙(8)’, ‘즐거움(7)’, ‘쾌락(7)’, ‘환희(5)’는 등장하는 빈도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기쁨’과 굉장히 밀접하다. 게다가 이들은 조사된 다른 나머지 어휘들에 비하여 우리의 실생활에서 보다 빈번히 쓰이는 어휘들이라 판단되며 이는 본 연구에 대한 실용성과 유용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기쁨’을 포함하여 이의 동의어로 선정된 ‘낙’, ‘즐거움’, ‘쾌락’, ‘환희’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준국어대사전】**

- 기쁨: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 낙: 살아가는 데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재미. 고통이 없이 편안히 지내는 즐거움.
- 즐거움: 즐거운 느낌이나 마음.
- 쾌락: 유쾌하고 즐거움. 또는 그런 느낌.
- <심리> 감성의 만족,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
- 환희: 매우 기뻐함. 또는 큰 기쁨.

새한불사전에서는 ‘기쁨’의 역어로서 ‘joie’, ‘plaisir’, ‘allégresse’, ‘félicité’를 제시하고 있으며 옛센스 한불사전에는 ‘joie’, ‘aise’, ‘plaisir’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어 ‘기쁨’에 대응하는 프랑스어 어휘를 선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

---

일의 가치.

마찬가지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보람’에 대하여 위의 세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세 번째 의미가 ‘기쁨’의 동의어로 선정되기에 가장 적합한 의미라고 판단된다.

는 총 5가지 어휘의 역어를 반대로 살펴보았다.

**【프라이미 불한사전】**

-joie: 기쁨, 환희.

-plaisir<sup>29)</sup>: 기쁨, 즐거움, 환희, 만족, 쾌락.

-allégresse: 환희, 희열.

-félicité: 1. [문어] (종교적인) 지복, 천복.

2. (흔히 복수) [문어] 기쁨, 행복.

-aise: 1. (생활의) 편함, 안락, (행위·거주) 자유, 안이.

2. [문어] 기쁨, 만족.

3. (복수) (생활의) 안락.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와 ‘plaisir’는 ‘기쁨’이라는 역어를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어휘들 ‘allégresse’, ‘félicité’, ‘aise’는 그렇지 않다. 게다가 ‘félicité’와 같은 경우 복수로 쓰일 때에는 ‘기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대체로 종교적 의미로서의 행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쓰임 모두 전반적으로 문어체적 성격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aise’역시 ‘기쁨’의 의미를 포함할 때에는 문어체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해당 어휘는 사실상 ‘기쁨’의 의미보다는 근심이 없고 몸과 마음이 편안함으로써 오는 즐거움 혹은 만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기쁨’이라는 역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혹은 포함하고 있더라도 ‘기쁨’의 의미로부터 다소간 벗어나는 어휘들, 즉 ‘allégresse’, ‘félicité’, ‘aise’를 ‘기쁨’의 대응어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그다음으로는 새한불사전과 옛센스 한불사전에서 ‘기쁨’의 역어로서 가장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때 제시된 모든 어휘를 역으로 살펴볼 때에도 ‘기쁨’이라는 역어를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어휘 ‘joie’를 ‘기쁨’의 대응 어휘로 선정하였다. 또한 앞선 두 가지의 한불사전에

29) ‘plaisir’는 위의 의미들 이외에도 ‘성적 쾌락’ 또는 흔히 복수로 쓰여 ‘향락’, ‘환락’, ‘오락’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서 ‘joie’ 와 아울러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어휘이자 제시된 모든 어휘를 역으로 살펴볼 때  
 에도 ‘기쁨’ 이라는 역어를 포함하고 있는 어휘 ‘plaisir’ 를 ‘joie’ 의 동의어로 선정하였다.  
 게다가 ‘joie’ , ‘plaisir’ 는 ‘기쁨’ 의 동의어로 선정된 ‘낙’ , ‘즐거움’ , ‘쾌락’ ,  
 ‘환희’ 와 마찬가지로 조사된 다른 나머지 어휘들에 비하여 비교적 흔히 접할 수 있는 어휘들이  
 라 판단되며 이는 거듭 본 연구에 대한 의의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상당수의 프랑스어 연구에서는 소위 감정명사라 칭해지는 명사를 식  
 별하기 위한 기준들로 통상 두 가지의 특성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에 대해 언급하며  
 ‘joie’ 와 ‘plaisir’ 가 해당 특성들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그중 첫 번째 기준은  
 기능동사 ‘éprouver(또는 ressentir)’ 와의 결합 가능성이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88. Il éprouve(ou ressent) (de la joie + du plaisir).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 와 ‘plaisir’ 는 기능동사 ‘éprouver(또는  
 ressentir)’ 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기능동사와의 양립 가능성compatibilité이 오직  
 감정명사에만 합당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해당 기준만을 통해서는 감정명사nom de sentiment와  
 감각명사nom de sensation를 구별해 낼 수 없다. 다시 말해, 감정명사뿐만 아니라 감각명사 또한  
 기능동사 ‘éprouver(또는 ressentir)’ 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88-1. Il éprouve(ou ressent) (la faim + la soif + du mépris + de l'inappétence + de l'attrait).

일반적으로 감정이 정신과 관련된 것이라면 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즉, 오감을  
 통한 신체적 자극과 관련된다.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러한 감각을 나타내는 명사들  
 ‘faim’ , ‘soif’ 는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들 ‘joie’ , ‘plaisir’ 와 다름없이 기능동사  
 ‘éprouver(또는 ressentir)’ 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게다가 감정명사가 아닌 명사들  
 ‘mépris’ , ‘inappétence’ , ‘attrait’ 또한 해당 기능동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첫 번째 기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명사구 ‘un sentiment de’ 와의 공기 가능성이라는 두 번째 기준이 제시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89. un sentiment de (joie + plaisir).

89-1. \*un sentiment de (faim + soif).

위의 예문들 89, 89-1에서 확인할 수 있듯 명사구 ‘un sentiment de’ 는 감정명사들인 ‘joie’ , ‘plaisir’ 와는 공기 관계를 갖는 반면 감각명사들인 ‘faim’ , ‘soif’ 와는 공기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처럼 해당 기준은 첫 번째 기준의 결함을 보완하며 감정명사와 감각명사의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해당 기준 또한 감정명사를 식별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89-2. un sentiment de (plénitude + vide + trahison + culpabilité + délivrance + parenté + compétence + dévalorisation + solidarité + supériorité).

위의 예문 89-2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감정명사가 아닌 명사들, 즉 plénitude, vide, trahison, culpabilité, délivrance, parenté, compétence, dévalorisation, solidarité, supériorité 또한 명사구 ‘un sentiment de’ 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기준은 언어학적 차원에서 프랑스어 감정명사가 지닌 보편적 특성들인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반드시 감정명사에서만 발견되는 특성들은 아니므로 감정명사를 식별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할 때 위와 같은 언어학적 기준을 수단으로 하여 감정명사의 범주를 명백히 한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Dubois(1978)와 Anscombe(1992)<sup>30)</sup>는 감정명사를 기술하기 위한 몇 가지 언어학적 특

30) J. Dubois, 1978, <<Annexe grammaticale>>, Dictionnair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II, Paris, Larousse.

J.-C. Anscombe, 1992, <<Quand on fait du sentiment: réflexions (presque) spontanées sur la nature des noms psychologiques>>, Hommages à Nicolas Ruwet, Ghent, Communication &

성을 제시한다. 우리는 해당 특성들을 열거하며 ‘joie’와 ‘plaisir’가 제시된 특성들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다음을 통해 확인해 보자.

(1) l'article partitif: de la joie, du plaisir.

(2) mais sans modifieur associé: \*de la joie rayonnante, \*du plaisir délicieux.

(3) un peu de ou un(e) certain(e) – au sens de <<un peu de>> et non <<un particulier>>: une certaine joie, un certain plaisir.

(4) un sentiment de: un sentiment de joie, un sentiment de plaisir.

(5) un état de (avec un modifieur exprimant la haute intensité): être dans un état de joie profonde, être dans un état de plaisir intense.

(6) la possibilité de construire avec les supports éprouver et ressentir: éprouver ou ressentir de la joie, éprouver ou ressentir du plaisir.

위의 여섯 가지 기준에 의거할 경우에도 ‘joie’와 ‘plaisir’는 감정명사로서의 언어학적 특성들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D. Leeman(1995)에 따르면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라 할지라도 위의 모든 특성을 반드시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가 아닐지라도 위의 기준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90. ??(de l'émoi + un peu d'émoi + un sentiment d'émoi + être dans un état d'émoi intense + (éprouver + ressentir) de l'émoi).

(D. Leeman, 1995, p.55)

91. de la fatigue, \*de la fatigue permanente, un peu de fatigue, un sentiment de fatigue, être dans un état de fatigue excessive, (éprouver + ressentir) de la fatigue.

---

Cognition(임정혜, 2014).



위의 예문 90에서 확인할 수 있듯 ‘동요’, ‘감동’, ‘근심’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 ‘émoi’는 일견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 즉 감정명사라고 간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Dubois(1978)와 Anscombe(1992)가 제시한 감정명사의 언어학적 특성들을 모두 갖추지 못한다. 반면에 ‘피로’, ‘피곤’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감각명사로 통용되는 명사 ‘fatigue’는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의 기준들을 모두 충족한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통사적 측면의 차이점들을 통해 감정명사의 전반을 기술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제한되며 어쩌면 불가능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미적 차원에서 감정명사에 접근할 것이다.

먼저 ‘joie’와 ‘plaisir’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Larousse】**

-joie: Sentiment de plaisir, de bonheur intense, caractérisé par sa plénitude et sa durée limitée, et éprouvé par quelqu'un dont une aspiration, un désir est satisfait ou en voie de l'être.

-plaisir: État de contentement que crée chez quelqu'un la satisfaction d'une tendance, d'un besoin, d'un désir.

**【CNRTL】**

-joie: Émotion vive, agréable, limitée dans le temps; sentiment de plénitude qui affecte l'être entier au moment où ses aspirations, ses ambitions, ses désirs ou ses rêves viennent à être satisfaits d'une manière effective ou imaginaire.

-plaisir: État affectif agréable, durable, que procure la satisfaction d'un besoin, d'un désir ou l'accomplissement d'une activité gratifiante.

우리는 프랑스어 감정명사 ‘joie’, ‘plaisir’ 그리고 한국어 감정명사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와 결합하는 동사들을 토대로 하여 해당 명사들의 통사-의미적 특성들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적으로 ‘joie’와 결합하는 동사들을 제시한 후 이때 제시된 동사들이 ‘plaisir’와 결합하는 형태를 비교 관찰할 것이다. 그다음 앞서 제시된 동사들과 대응되는 한국어 동사들이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와 결합하는 형태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위와 같은 방식 아래 ‘joie’와 결합하는 대표적 기능동사를 시작으로 하여 상적 가치를 갖는 기능동사, 신체를 통한 감정 표출의 동사, 감정의 제어 여부를 나타내는 동사를 차례대로 살펴볼 것이다. 이 가운데 상적 가치를 갖는 기능동사는 점괄상, 지속상, 기동상, 종결상, 강도상으로 구분할 것이며 신체를 통한 감정 표출의 동사는 경험주의 의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 후 언어를 통한 감정 표출의 동사를 더하여 살펴볼 것이다.

#### 제4장 감정명사의 통사-의미적 특성

##### 제1절 감정명사와 결합하는 기능동사

우리는 프랑스어 감정명사 ‘joie’와 결합하는 대표적 기능동사들로서 ‘éprouver’, ‘ressentir’, ‘avoir’, ‘être’를 제시할 것이다. 해당 동사들 가운데 먼저 ‘éprouver’와 ‘ressentir’는 ‘joie’, ‘plaisir’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92. s'il s'en représente la conservation, il éprouve de la joie.

(J.-B. Baillièrè, 1845, p.518)

93. Nous demandons au candidat de décrire différentes situations où il ressent de la

joie, de la tristesse ou de la colère, (...)

(vox-institute.ch)

94. Tout être humain est une personne capable d'éprouver du plaisir ou de la douleur, une personne qui peut souffrir ou se sentir (...)

(rbc.com)

95. Les nutritionnistes s'accordent à dire qu'il faut ressentir du plaisir en consommant un aliment et le goût en est le principal facteur.

(rungsinternational.com)

위의 동사들과 마찬가지로 ‘avoir’ 또한 ‘joie’, ‘plaisir’ 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avoir de la joie à + inf.’ 그리고 ‘avoir du plaisir à + inf.’ 의 형태로 실현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96. J'ai de la joie à vous voir.

97. Pourtant, il semble plus facile d'avoir du plaisir à être complice avec quelqu'un qui nous aime (...)

(Pierre Mongeau, 2000, p.4)

한편 이들은 명사 앞에 위치한 관사가 생략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CNRTL에서는 ‘joie’ 와 관련하여 ‘avoir joie à + inf.’, ‘avoir joie de + subst.’ 의 형태를 문어적 표현이라고 기술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98. Salut, monsieur Léonard Botal, j'ai joie à vous revoir.

(Calmann-Lévy, 1929, p.434)

99. Il semblait qu'elle eût joie de ce retour.

(C Claudel, 1896, p.516)

사실 관사가 생략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joie’ 보다 ‘plaisir’ 에 있어 더욱 빈번하다. 이때 ‘plaisir’ 는 ‘avoir plaisir à + inf.’ 의 형태로 실현된다. 한편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지만 ‘avoir plaisir à + inf.’ 의 형태에 비하여 구어체적 성격이 강한 ‘prendre plaisir à + (inf. + subst.)’ 의 형태도 자주 사용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00. Le Président a dit combien il avait eu plaisir à travailler avec une équipe aussi compétente et talentueuse.

(iom.int)

101. Je prends plaisir à travailler.

102. On a le droit de prendre plaisir au travail.

‘être’ 의 경우 ‘joie’ 는 ‘être en joie’ , ‘être dans la joie’ 의 형태로 곧잘 사용된다. 그러나 ‘plaisir’ 는 ‘être dans le plaisir’ 는 가능한 반면 ‘\*être en plaisir’ 의 형태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03. Il était en joie d'un bout à l'autre de l'année.

(Marcel Aymé, 1956, p.234)

104. On chantait, on dansait, on riait, on priait. Tout le monde était dans la joie.

(Chateaubr, 1848, p.220)

105. Je suis fondamentalement optimiste, parce que je suis toujours dans le plaisir.

(lefigaro.fr, 21.03.2013)

	joie	plaisir
NO éprouver Dét Nsent	+	+
NO ressentir Dét Nsent	+	+
NO avoir Dét Nsent	+	+
NO avoir Nsent	+	+
NO prendre Nsent	-	+
NO être dans Dét Nsent	+	+
NO être en Nsent	+	-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 위의 동사들은 ‘느끼다’로 표현된다. 해당 동사는 한국어 감정명사 ‘기쁨’을 포함하여 이의 동의어들인 ‘즐거움’, ‘쾌락’, ‘낙’, ‘환희’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106.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을)(를) 느끼다.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
느끼다	+	+	+	+	+

프랑스어 감정명사 ‘joie’는 위와 같은 기능동사들 중에서도 사동사verbe causatif와의 결합이 매우 빈번하다. 이러한 사동사는 어떤 사건, 사물 혹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문제시되는 감정을 유발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해당 구문은 주어의 자리에 감정의 원인이 위치하게 된다. 우

리는 ‘joie’ 와 결합하는 사동사들로서 ‘faire’ , ‘donner’ , ‘causer’ , ‘apporter’ , ‘procurer’ , ‘mettre qnn en’ 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07. Comme nous tendons à rechercher ce qui nous cause de la joie, (...), nous tendons à imaginer tout ce qui peut causer de la joie à l'objet aimé; (...)

(Victor Delbos, 2005, p.135)

108. Les lanternes sont souvent rouges parce que les Chinois croient que cette couleur apporte la joie et la chance.

(collectionscanada.gc.ca)

109. Notre économie dépend étroitement de la capacité de vendre des objets susceptibles de donner du plaisir ou de rendre la vie plus facile.

(rbc.com)

110. L'apprentissage devrait procurer du plaisir, devrait intéresser, devrait attiser la curiosité, mais devrait aussi être une aventure.

(europarl.europa.eu)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 와 ‘plaisir’ 는 각각 ‘causer de la joie’ , ‘apporter la joie’ 그리고 ‘donner du plaisir’ , ‘procurer du plaisir’ 의 형태를 통해 어떤 요인이 해당 감정들을 유발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위의 사동사들은 대체로 ‘S(cause) + Vcausatif + Dét + Nsent + (à qnn)’ 과 같은 통사 구조를 통해 실현되는데 ‘faire’ 와 ‘mettre’ 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11. Le contact avec la nature fait la joie de plusieurs générations et constitue le clou des vacances pour bien des enfants.

112. Vous arrivez à point pour nous faire le plaisir de prendre du thé avec nous.

(Miomandre, 1908, p.150)

113. Il y a vraiment chez la princesse une grande préoccupation de faire plaisir aux gens. Elle aime les petites surprises, les petits cadeaux.

(Goncourt, 1865, p.203)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 는 ‘faire’ 와 결합할 때 주로 ‘faire la joie de qqn’ 의 형태로 사용되어 주어가 누군가에 대한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을 표현한다. 반면에 ‘plaisir’ 는 ‘faire’ 와 결합할 때 대체로 ‘faire à qqn le plaisir de (inf. + subst.)’ 또는 ‘faire plaisir à qqn’ 의 형태로 사용되어 주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 또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을 표현한다. 이들은 앞서 제시된 다른 사동사들이 ‘S(cause) + Vcausatif + Dét + Nsent + (à qnn)’ 의 형태를 띠는 것과 다른 통사 구조를 보여 준다. 또한 이들 가운데 ‘faire plaisir à qqn’ 과 같이 명사 앞의 관사가 생략되는 경우 관용구적 성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joie’ 는 ‘mettre’ 와 결합할 때 ‘mettre qqn en joie’ 의 형태로 사용되어 주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유발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plaisir’ 는 ‘\*mettre qnn en plaisir’ 의 형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114. J'esquisse au tableau noir une caricature du père Blanchot et de ses grands favoris, qui met les gamines en joie.

(Colette, 1900, p.150)

	joie	plaisir
NO faire (Dét) Nsent	+	+

NO donner Dét Nsent	+	+
NO causer Dét Nsent	+	+
NO apporter Dét Nsent	+	+
NO procurer Dét Nsent	+	+
NO mettre qnn en Nsent	+	-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 위의 동사들은 ‘주다’, ‘가져다주다’, ‘선사하다’, ‘유발하다’, ‘자아내다’와 같은 동사들로 표현된다. 해당 동사들 모두 ‘기쁨’, ‘즐거움’, ‘환희’와의 결합은 자연스럽지만 ‘쾌락’, ‘낙’과의 결합은 자연스럽지 않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15.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을)(를) 주다.

116.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을)(를) 가져다주다.

117.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을)(를) 선사하다.

118.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을)(를) 유발하다.

119.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을)(를) 자아내다.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
주다	+	+	-	-	+
가져다주다	+	+	-	-	+
선사하다	+	+	-	-	+



유발하다	+	+	-	-	+
자아내다	+	+	-	-	+

제2절 상적 가치를 갖는 기능동사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어 감정명사 ‘joie’ 와 결합하여 점괄상aspect ponctuel, 지속상aspect duratif, 기동상aspect inchoatif, 종결상aspect terminatif, 강도상aspect intensif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제시할 것이다. 먼저 점괄상의 동사들을 살펴보자.

### 1. 점괄상

점괄상aspect ponctuel은 매우 빠르게 행해지는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상으로 이때 문제시 되는 감정은 한 점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러한 점괄상의 특성은 ‘exploser’, ‘éclater’ 와 같은 동사들을 통해 잘 드러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20. elle est aussi toujours de bonne humeur et explose de joie aux moindres prétextes.

(leparisien.fr)

121. Les garçons ont éclaté de joie et à présent nous allons faire tout ce qui est possible pour donner le meilleur de nous-mêmes (...)

(dianova.ch)

122. Les créateurs du jeu Les Sims vous proposent un carnaval de tirs dans lequel vous exploseriez de plaisir pendant des heures!

(resclip.com)

123. J'éclate de plaisir, libre de laisser cours à ma jouissance.

(Sarah Cooper, 2015)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 와 ‘plaisir’ 는 각각 ‘exploser de joie’ , ‘éclater de joie’ 그리고 ‘exploser de plaisir’ , ‘éclater de plaisir’ 의 형태를 통해 한 점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plaisir’ 는 ‘joie’ 에 비하여 위의 동사들과의 결합이 빈번하지 않다.

	joie	plaisir
NO exploser de Nsent	+	+
NO éclater de Nsent	+	+

이러한 점괄상의 동사들은 통사적 측면에서 전치사구 ‘pendant Dnum N<sup>31)</sup>’ 또는 부사들 ‘longtemps<sup>32)</sup>’ , ‘longuement’ , ‘lentement’ 과의 양립이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 점괄상은 매우 빠르게 행해지는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상이므로 어떤 과정의 지속 기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어휘와의 양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31) 그러나 전치사 ‘pendant’ 의 경우 ‘pendant Dnum(Déterminant numérique) N(Nom de temps)’ 과 ‘pendant Dét(Déterminant) Np(Nom de période)’ 를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본문의 내용과 같이 점괄상을 나타내는 동사와의 양립이 불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ex) \*Il explose de joie pendant des heures.

Il explose de joie pendant la fête.

‘pendant Dnum N’ 은 ‘exploser’ 의 과정이 진행되는 시간, 즉 해당 과정의 지속 기간을 가리키는 반면 ‘pendant Dét Np’ 는 ‘exploser’ 의 동작이 발생하는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상의 경우 이 둘과의 양립이 모두 가능하다.

ex) Il nage dans la joie pendant des heures.

Il nage dans la joie pendant le repas.

CNRTL에서는 전치사 ‘pendant’ 에 대하여 ‘Sert à exprimer la durée d'un procès’ 라고 기술한다(www.cnrtl.fr).

32) CNRTL에서는 부사 ‘longtemps’ 에 대하여 ‘Pendant un long d'espace de temps’ 이라고 기술한다(www.cnrtl.fr).

124. \*II (explose + éclate) de (joie + plaisir) pendant des heures.

125. \*II (explose + éclate) de (joie + plaisir) longtemps.

반면에 해당 동사들은 ‘soudain<sup>33)</sup>’, ‘tout à coup’, ‘soudainement’, ‘brusquement’, ‘subitement’, ‘instantanément’ 과 같이 예기치 못한 사이에 급히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부사 또는 부사구와의 양립이 가능함으로써 이들이 점괄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26. II (explose + éclate) soudain de (joie + plaisir).

127. Tout à coup, il (explose + éclate) de (joie + plaisir).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 위의 동사들은 ‘터지다’ 혹은 ‘터져 나오다’, ‘폭발하다’ 로 해석된다. 이들은 각각 ‘속으로 참았거나 쌓였던 감정 따위가 폭발쳐 나오다’, ‘속에 쌓여 있던 감정 따위가 일시에 세찬 기세로 나오다’ 라는 의미를 지니며 ‘기쁨’, ‘즐거움’, ‘환희’ 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주목할 점은 여기서 제시된 한국어 동사들은 주로 ‘분노’, ‘불만’, ‘분통’ 혹은 ‘울분’, ‘노여움’, ‘원한’ 과 같은 감정들과의 결합이 한층 더 빈번하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28. (기쁨 + 즐거움 + \*괘락 + \*낙 + 환희)(이)(가) 터져 나오다.

129. (기쁨 + 즐거움 + \*괘락 + \*낙 + 환희)(이)(가) 폭발하다.

33) CNRTL에서는 부사 ‘soudain’ 에 대하여 ‘(Tout à coup, sans signe avant-coureur), Soudain accompagne un verbe au passé simple qui, décrivant un changement, une rupture, s'oppose à un verbe à l'imparfait qui marque une durée’ 라고 기술한다(www.cnrtl.fr).

130. (분노 + 불만 + 분통)(가)(이) 터지다.

131. (울분 + 노여움 + 원한)이 폭발하다.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
터지다	+	+	-	-	+
폭발하다	+	+	-	-	+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동사들은 점괄상의 특성에 따라 매우 빠르게 행해지는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은 일정 지속 기간을 내포하고 있는 어휘들 ‘늘<sup>34)</sup>’, ‘오래’, ‘오랫동안’<sup>35)</sup>과의 양립이 불가능하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32. \*(기쁨 + 즐거움 + 환희)(이)(가) 늘 (터져 나오다 + 폭발하다).

133. \*(기쁨 + 즐거움 + 환희)(이)(가) 오래 (터져 나오다 + 폭발하다).

134. \*(기쁨 + 즐거움 + 환희)(이)(가) 오랫동안 (터져 나오다 + 폭발하다).

반면에 해당 동사들은 ‘순간’, ‘순식간’, ‘갑자기’<sup>36)</sup>와 같이 일시적이며 갑작스러운 동작

34) 어떤 사행의 기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부사는 반복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본문에서 제시된 기간 부사는 순간적 의미와 대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Un adverbe qui sert à marquer la durée d'un procès peut entraîner l'idée de répétition (임정혜, 2002, p.54 참조).

35) 늘: 계속하여 언제나.

오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이 길게.

오랫동안: 시간상으로 썩 긴 동안.

표준국어대사전

36)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바로 그때. 두 사건이나 행동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어휘와의 양립이 가능함으로써 이들이 점괄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35. 순간 (기쁨 + 즐거움 + 환희)(이)(가) (터져 나오다 + 폭발하다).

136. 순식간에 (기쁨 + 즐거움 + 환희)(이)(가) (터져 나오다 + 폭발하다).

137. 갑자기 (기쁨 + 즐거움 + 환희)(이)(가) (터져 나오다 + 폭발하다).

## 2. 지속상

지속상aspect duratif은 시간 선상에 위치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상으로 이때 주어는 문제시되는 감정 상태의 내부에 존재한다. 이러한 지속상의 특성은 ‘être en/dans’, ‘être plongé dans’, ‘vivre dans’, ‘baigner dans’, ‘nager dans’ 과 같은 동사들을 통해 잘 드러난다. 아울러 이때 등장하는 전치사 ‘dans’ 은 주어가 해당 감정 상태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38. J'ai été plongée dans la joie et la souffrance de personnes qui n'avaient pas accès aux soins de santé et vivaient de revenus très faibles.

(cihr-irsc.gc.ca)

139. Je nage dans la joie, et je tremble de crainte.

(Pierre Corneille, 1837, p.238)

---

순식간: 눈을 한 번 깜짝하거나 숨을 한 번 쉴 만한 아주 짧은 동안.

갑자기: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히.

표준국어대사전

140. Si vous faites le choix de vivre dans le plaisir, vous vous satisferez de ce que vous avez.

(lavieepanouie.com, 03.16.2018)

141. Dans mon travail aussi, je baigne dans le plaisir.

(lexpress.fr, 13.01.2000)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 와 ‘plaisir’ 는 각각 ‘être plongé dans la joie’ , ‘nager dans la joie’ 그리고 ‘vivre dans le plaisir’ , ‘baigner dans le plaisir’ 의 형태를 통해 해당 감정들이 시간 선상에 위치하여 다소간 지속되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joie	plaisir
NO être en/dans (Dét) Nsent	+	+ <sup>37)</sup>
NO être plongé dans Dét Nsent	+	+
NO vivre dans Dét Nsent	+	+
NO baigner dans Dét Nsent	+	+
NO nager dans Dét Nsent	+	+

이러한 지속상의 동사들은 점괄상의 동사들과 달리 전치사구 ‘pendant Dnum N’ 또는 부사 ‘longtemps’ 과의 양립이 가능함으로써 이들이 지속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37) ‘être en’ 과 ‘être dans’ 은 ‘plaisir’ 의 경우 ‘\*être en plaisir’ 는 불가능한 반면 ‘être dans le plaisir’ 는 가능함을 「제1절 감정명사와 결합하는 기능동사」에서 다루었다. 이에 따라 ‘plaisir’ 는 +로 표기하였다.

142. Je suis en joie (pendant des heures + longtemps).

143. Je suis dans le plaisir (pendant des heures + longtemps).

144. Elle (est plongée + vit + baigne + nage) dans (la joie + le plaisir) (pendant des heures + longtemps).

반면에 해당 동사들은 ‘tout à coup’, ‘brusquement’, ‘instantanément’ 과 같은 부사 또는 부사구와의 양립이 불가능하다. 앞서 기술했듯 지속상은 시간 선상에 위치하여 일정 기간 지속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상이므로 갑작스럽게 급히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어휘와의 양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45. \*Tout à coup, je suis en joie.

146. \*Je suis dans le plaisir brusquement.

147. \*Elle (est plongée + vit + baigne + nage) dans (la joie + le plaisir) instantanément.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 위의 동사들은 ‘빠지다(빠져 있다)’, ‘잠기다(잠겨 있다)’, ‘젓다(젓어 있다)’, ‘살다’ 와 대응된다. 이들 가운데 ‘빠지다’, ‘잠기다’, ‘젓다’ 는 각각 ‘무엇에 정신이 아주 쏠리어 헤어나지 못하다’, ‘어떤 기분 상태에 놓이게 되다’, ‘어떤 심정에 잠기다’ 라는 의미를 지니며 ‘낙’ 을 제외한 나머지 명사들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어에서 ‘누리다’, ‘만끽하다’ 와 같은 동사들은 ‘기쁨’ 과 관련된 감정과 빈번히 결합한다. 이때 해당 동사들 또한 감정이 시간 선상에 위치하여 다소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사들로 지속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욕망을 마음껏 충족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며 앞선 동사들과 마찬가지로 ‘낙’ 을 제외한 나머

지 명사들과의 결합이 자유롭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48.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에 빠지다(빠져 있다).

149.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에 잠기다(잠겨 있다).

150.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에 젖다(젖어 있다).

151.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을)(를) 누리다.

152.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을)(를) 만끽하다.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
빠지다(빠져 있다)	+	+	+	-	+
잠기다(잠겨 있다)	+	+	+	-	+
젖다(젖어 있다)	+	+	+	-	+
누리다	+	+	+	-	+
만끽하다	+	+	+	-	+

한편 ‘살다’는 ‘기쁨’, ‘즐거움’, ‘낙’과의 결합은 빈번한 데 반하여 ‘쾌락’, ‘환희’와의 결합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어 감정명사들 가운데 특히 ‘낙’은 ‘삼다’와의 결합이 매우 빈번하다. 해당 동사 또한 감정이 다소간 지속되고 있음을 전제하므로 상적 관점에서는 지속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삼다’는 ‘낙’만큼은 아니지만 ‘기쁨’, ‘즐거움’과의 결합도 가능하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53.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으로)(로) 살다.



154.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으로)(로) 삼다.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
살다	+	+	-	+	-
삼다	+	+	-	+	-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동사들은 일정 지속 기간을 내포하고 있는 어휘들 ‘늘’, ‘오래’, ‘오랫동안’ 과의 양립이 가능함으로써 이들이 지속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55. 오랫동안 (기쁨 + 즐거움 + 쾌락 + 환희)에 (빠져 있다 + 잠겨 있다 + 젖어 있다).

156. 오래 (기쁨 + 즐거움 + 쾌락 + 환희)(을)(를) (누리다 + 만끽하다).

157. 늘 (기쁨 + 즐거움 + 낙)(으로)(로) (살다 + 삼다).

반면에 해당 동사들은 지속상의 특성에 따라 ‘순간’, ‘순식간’, ‘갑자기’ 와 같이 일시적이며 갑작스러운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어휘와의 양립이 불가능하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58. \*순간 (기쁨 + 즐거움 + 쾌락 + 환희)에 (빠져 있다 + 잠겨 있다 + 젖어 있다).

159. \*순식간에 (기쁨 + 즐거움 + 쾌락 + 환희)(을)(를) (누리다 + 만끽하다).

160. \*갑자기 (기쁨 + 즐거움 + 낙)(으로)(로) (살다 + 삼다).

프랑스어 감정명사 ‘joie’ 는 「제1절 감정명사와 결합하는 기능동사」에서 언급했다시피 사동사verbe causatif와의 결합이 매우 빈번하다. 우리는 이러한 사동사들 가운데 특히 지속상의 특성을 지니는 동사들로서 ‘entretenir dans’, ‘plonger dans’, ‘faire durer’ 를 제시할 것이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61. C'est un livre qui nous plonge dans la joie.

162. Mais, diront certains, on peut faire durer le plaisir, multiplier les conditionnalités et étendre jusqu'à l'infini les critères (...)

(europarl.europa.eu)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 와 ‘plaisir’ 는 각각 ‘plonger dans la joie’ 그리고 ‘faire durer le plaisir’ 의 형태를 통해 해당 감정들이 시간 선상에 위치하여 다소간 지속되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joie	plaisir
NO entretenir dans Dét Nsent	+	+
NO plonger dans Dét Nsent	+	+
NO faire durer Dét Nsent	+	+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 위의 동사들은 ‘지속시키다’ 와 대응된다. 해당 동사는 ‘낙’, ‘환희’ 를 제외한 나머지 명사들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163.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을)(를) 지속시키다.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
지속시키다	+	+	+	-	-

### 3. 기동상

기동상 aspect inchoatif은 막 시작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상으로 문제시되는 감정이 어떤 시점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을 표현한다. 이러한 기동상의 특성은 ‘surgir’, ‘tomber dans’, ‘se mettre en’ 과 같은 동사들을 통해 잘 드러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64. Un moment où la joie surgit paradoxalement de nos notes maladroites et tremblotantes.

(Paule-Andrée Scheder, 2004, p.25)

165. (...) Le plaisir surgit de celui-ci, par surcroît.

(lexpress.fr, 06.08.1998)

166. Enfin, elle tombe dans la joie lorsque la réponse à son mot est positive.

(brevetdescolleges.fr)

167. Je me mets en joie et cultive l’enthousiasme.

(13lunes.fr, 31.01.2016)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 와 ‘plaisir’ 는 각각 ‘la joie surgir’, ‘tomber dans la joie’, ‘se mettre en joie’ 그리고 ‘le plaisir surgir’ 의 형태를 통해 해당 감정들이 어떤 시점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joie	plaisir
Nsent surgir	+	+
NO tomber dans Dét Nsent	+	+
NO se mettre en Nsent	+	-

CNRTL에서는 동사 ‘surgir’ 에 대하여 주어가 추상적 실재일 경우 ‘Prendre naissance de manière brusque, imprévue’ 라고 기술하며 이의 동의어들로서 ‘naître’, ‘se manifester’ 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 ‘surgir’ 는 예상치 못한 사이에 갑자기 시작된다는 의미를 지니며 기동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사 ‘tomber dans’ 은 앞서 제시한 동사 ‘être dans’ 과 비교해 봄으로써 기동상의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68. Elle est dans (la joie + le plaisir).

169. Elle tombe dans (la joie + le plaisir).

위의 첫 번째 예문을 직역할 경우 ‘그녀는 기쁨 안에 있다’ 인 반면 두 번째 예문은 ‘그녀는 기쁨에 빠지다’ 로 ‘tomber dans’ 은 ‘être dans’ 에 비하여 해당 감정들이 막 시작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arousse에서는 동사 ‘se mettre en’ 에 대하여 ‘Commencer à être dans tel état, commencer une action’ 이라고 기술한다. 이에 따라 동사 ‘se mettre en’ 은 어떤 행위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기동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 위의 동사들은 ‘내쫓다’, ‘쫓아나다’, ‘쫓아오르다’, ‘빠지다’

와 대응된다. 이들 가운데 ‘내숫다’는 ‘느낌이나 기운이 힘차게 생겨 나오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기쁨’과의 결합만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숫아나다’, ‘숫아오르다’는 각각 ‘감정이나 힘 따위가 생겨서 일어나다’, ‘감정이나 힘 따위가 힘차게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낙’을 제외한 나머지 명사들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70.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이)(가) 내숫다.

171.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이)(가) 숫아나다.

172.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이)(가) 숫아오르다.

한편 ‘tomber dans’은 비유적 의미로서 ‘-에 빠지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2. 지속상」에서 제시된 의미와 중복되는 듯하다. 그러나 지속상은 어떤 감정에 빠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 반면 기동상은 해당 감정에 막 빠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임에 따라 이 둘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 보조동사 ‘있다’를 삽입해 봄으로써 확인이 가능하다. ‘있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변화가 끝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로 지속상을 나타낼 때에는 ‘빠지다’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동상을 나타낼 경우 ‘빠지다’는 해당 보조동사와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
내숫다	+	-	-	-	-
숫아나다	+	+	+	-	+
숫아오르다	+	+	+	-	+
빠지다	+	+	+	-	+

우리는 「2. 지속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동사들 가운데 특히 기동상의 특성을 지니는 동사들

로서 ‘déclencher’, ‘engendrer’, ‘éveiller’, ‘réveiller’, ‘faire naître’, ‘faire éclore’ 를 제시할 것이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73. Une certaine continuité dans le désespoir peut engendrer la joie.

(Albert Camus, 1983, p.203)

174. Mais «le breuvage» qui a déclenché le plaisir n’ en est pas pour autant la source.

(français.agonia.net)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 와 ‘plaisir’ 는 각각 ‘engendrer la joie’ 그리고 ‘déclencher le plaisir’ 의 형태를 통해 일종의 요인이 해당 감정들을 어떤 시점에서 처음으로 발생하게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joie	plaisir
NO déclencher Dét Nsent	+	+
NO engendrer Dét Nsent	+	+
NO éveiller Dét Nsent	+	+
NO réveiller Dét Nsent	+	+
NO faire naître Dét Nsent	+	+
NO faire éclore Dét Nsent	+	+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 위의 동사들은 ‘(가득) 차게 하다’, ‘안기다(안겨 주다)’ 와 대응된다. 해당 동사들 ‘(가득) 차게 하다’ 와 ‘안다’ 의 사동형 ‘안기다(안겨 주다)’ 는 ‘쾌락’, ‘낙’ 을 제외한 나머지 명사들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75.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으로)(로) (가득) 차게 하다.

176.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을)(를) 안기다(안겨 주다).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
(가득) 차게 하다	+	+	-	-	+
안기다(안겨 주다)	+	+	-	-	+

#### 4. 종결상

종결상aspect terminatif은 끝나는 동작을 나타내는 상으로 문제시되는 감정이 어떤 시점에서 끝나는 것을 표현한다. 이러한 종결상의 특성은 ‘prendre fin’, ‘se dissiper’ 와 같은 동사들을 통해 잘 드러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77. La désillusion se manifeste bientôt lorsque la joie prend fin.

(Soeur Anne Woods, 2018, p.19)

178. Attachés au plaisir, quand le plaisir prend fin, ils connaissent la souffrance.

(kanshoji.org)

179. Les magistrats, étonnés, cherchent à découvrir l'auteur de la nouvelle qui a causé cette joie subite; (...), et la joie se dissipe, (...)

(Titus Livius, 1833, p.516)

180. Le plaisir se dissipe lorsqu'on veut le borner autrement que par la nécessité; (...)

(Senancour, 1840, p.102)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 와 ‘plaisir’ 는 각각 ‘la joie prendre fin’ , ‘la joie se dissiper’ 그리고 ‘le plaisir prendre fin’ , ‘le plaisir se dissiper’ 의 형태를 통해 해당 감정들이 어떤 시점에서 끝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joie	plaisir
Nsent prendre fin	+	+
Nsent se dissiper	+	+

CNRTL에서는 동사구 ‘prendre fin’ 에 대하여 ‘se terminer’ , ‘cesser’ 라고 기술하며 해당 동사구가 종결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 CNRTL에서는 동사 ‘dissiper’ 를 ‘Mettre fin à un état, à un sentiment, à une sensation, les faire cesser’ 라고 기술한다. 이에 따라 동사 ‘dissiper’ 는 어떤 상태, 감정, 감각을 끝낸다는 의미를 지니며 종결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감정명사를 주어로 하므로 ‘dissiepr’ 대신 ‘se dissiper’ 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 위의 동사들은 ‘사라지다’ , ‘다하다’ 와 대응된다. 이들 가운데 ‘사라지다’ 는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없어지다’ 라는 의미를 지니며 ‘기쁨’ , ‘즐거움’ , ‘낙’ 과의 결합이 빈번하다. 그러나 ‘어떤 것이 끝나거나 남아 있지 아니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는 ‘다하다’ 는 ‘기쁨’ , ‘즐거움’ 과의 결합만이 자주 등장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81. (기쁨 + 즐거움 + ?괘락 + 낙 + ?환희)(이)(가) 사라지다.

182. (기쁨 + 즐거움 + ?괘락 + \*낙 + \*환희)(이)(가) 다하다.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
사라지다	+	+	-	+	-
다하다	+	+	-	-	-

우리는 「2. 지속상」과 「3. 기동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동사들 가운데 특히 종결상의 특성을 지니는 동사들로서 ‘chasser’, ‘gâcher’, ‘gâter’, ‘dissiper’, ‘priver’를 제시할 것이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83. De telles règles sont offensantes et gâchent la joie d'avoir de bons voisins.

(europarl.europa.eu)

184. La pensée gâte le plaisir et exaspère la peine.

(Paul Valéry)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와 ‘plaisir’는 각각 ‘gâcher la joie’ 그리고 ‘gâter le plaisir’의 형태를 통해 일종의 요인이 해당 감정들을 어떤 시점에서 끝나게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위의 사동사들은 대체로 ‘S(cause) + Vcausatif + Dét + Nsent + (à qnn)’과 같은 통사 구조를 통해 실현되는데 ‘priver’의 경우 전치사 ‘de’를 동반하여 ‘S(cause) + Vcausatif + qnn + de + Dét + Nsent’과 같은 통사 구조를 보인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185. On les prive du plaisir du jeu pendant leur enfance, (...)

(unicef.org)

	joie	plaisir
NO chasser Dét Nsent	+	+
NO gâcher Dét Nsent	+	+
NO gâter Dét Nsent	+	+
NO dissiper Dét Nsent	+	+
NO priver de Dét Nsent	+	+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 위의 동사들은 ‘빼앗다’, ‘앗다(앗아 가다)’ 와 대응된다. 해당 동사들 모두 ‘기쁨’, ‘즐거움’ 과의 결합만이 빈번하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86.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을)(를) 빼앗다.

187.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을)(를) 앗다(앗아 가다).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
빼앗다	+	+	-	-	-
앗다(앗아 가다)	+	+	-	-	-

5. 강도상<sup>38)</sup>

강도상aspect intensif은 강도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상으로 문제시되는 감정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것을 표현한다. 이러한 강도상의 특성은 ‘augmenter’, ‘renforcer’, ‘attiser’, ‘accroître’, ‘aviver’ 또는 ‘calmer’, ‘apaiser’, ‘diminuer’ 와 같은 동사들을 통해

38) 강도intensité의 경우 학자들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되지만 필자는 이러한 강도를 상aspect으로 간주하여 강도상aspect intensif을 제시할 것이다.

잘 드러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88. (...) car le vin réconforte l'âme, adoucit le chagrin comme la mandragore adoucit les hommes et attise la joie comme l'huile attise le feu.

(Louis Lewin. CAMION NOIR: PHANTASTICA Une encyclopédie des drogues)

189. Depuis quelques temps, j' y ai aussi trouvé un statut que ni la technique du geste ni l' amour du rêve et des belles histoires ne parviennent à calmer la joie et l' angoisse (...)

(Clown Luis, le mime, le clown)

190. (...) elle essayait des larmes d'hilarité et pour accroître le plaisir qu'elle éprouvait, elle prolongeait le dialogue, (...)

(Marcel Proust,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191. Ça augmente l'anxiété, diminue le plaisir.

(context.reverso.net)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 와 'plaisir' 는 각각 'attiser la joie' , 'calmer la joie' 그리고 'accroître le plaisir' , 'diminuer le plaisir' 의 형태를 통해 문제시되는 감정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joie	plaisir
NO augmenter Dét Nsent	+	+
NO renforcer Dét Nsent	+	+
NO attiser Dét Nsent	+	+

NO accroître Dét Nsent	+	+
NO aviver Dét Nsent	+	+
NO calmer Dét Nsent	+	+
NO apaiser Dét Nsent	+	+
NO diminuer Dét Nsent	+	+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 위의 동사들은 ‘증진시키다’, ‘더하다’, ‘고조되다’ 와 대응된다. 해당 동사들 모두 ‘기쁨’, ‘즐거움’ 과의 결합은 가능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명사들과의 결합은 자연스럽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어에서는 기쁨과 관련된 감정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표현이 프랑스어만큼 현저하지 않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92.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을)(를) 증진시키다.

193.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을)(를) 더하다.

194.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이)(가) 고조되다.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
증진시키다	+	+	-	-	-
더하다	+	+	-	-	-
고조되다	+	+	-	-	-

제3절 신체를 통한 감정 표출

인간의 감정은 외면성exteriorité과 내면성intériorit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

의 감정은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95. Il (manifeste + montre + extériorise + témoigne) (sa joie + son plaisir).

196. Il est submergé par (la joie + le plaisir).

위의 첫 번째 예문에서 ‘joie’와 ‘plaisir’는 ‘manifeste’, ‘montrer’, ‘extérioriser’, ‘témoigner’와의 결합을 통해 해당 감정들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 즉 감정의 외면성을 보여 준다. 반면에 두 번째 예문에서 ‘joie’와 ‘plaisir’는 ‘être submergé’와 결합하며 해당 감정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감정의 내면성을 보여 준다.

	joie	plaisir
NO manifester Dét Nsent	+	+
NO montrer Dét Nsent	+	+
NO extérioriser Dét Nsent	+	+
NO témoigner Dét Nsent	+	+
NO être submergé par Dét Nsent	+	+

프랑스어 감정명사 ‘joie’는 신체적 표출을 동반하는 동사들을 통해 위와 같은 감정의 외면성을 곧잘 드러낸다. 여기서 우리는 신체를 통한 감정 표출을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것이다. 그중 첫 번째는 문제시되는 감정을 겪는 경험주 *expé rienceur*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해당 감정을 자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제시되는 감정이 경험주의 의지와 무관하게 표출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험주가 언어(말 혹은 목소리)를 통해 문제시되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먼저 경험주의 의지에 따른 감정 표출의 동사들을 살펴보자.

1. 경험주의 의지에 따른 감정 표출

여기서 제시되는 동사들에는 감정을 느끼는 주체, 즉 경험주의 의지가 전제되어 있다. 예컨대 ‘bondir’, ‘sauter’, ‘danser’, ‘trépigner’, ‘sourire’, ‘rire’ 와 같은 동사들이 해당 경우에 속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197. (...) les producteurs devraient plutôt danser de joie que les prix soient toujours nettement plus élevés qu'il y a deux ans.

(momagri.fr)

198. Les spectateurs noirs, haletant, trépignaient de joie, et resserraient de plus en plus leur cercle autour des deux forcenés.

(Martin du G, 1923, p.999)

199. Moi, j' ai sauté de joie quand y a eu Microcosmos491, j' ai bondi de plaisir sur ma chaise parce que y a eu un effet médiatique (...)

(Isabelle Mauz, 2005, p.137)

200. On croirait qu'il sourit de plaisir en voyant notre prospérité, ou en écoutant louanges que lui donne ma reconnaissance.

(Valade, 1808, p.240)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 와 ‘plaisir’ 는 각각 ‘danser de joie’, ‘trépigner de joie’, ‘sauter de joie’ 그리고 ‘bondir de plaisir’, ‘sourire de plaisir’ 의 형태를 통해 경험주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해당 감정들을 자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joie	plaisir
NO bondir de Nsent	+	+
NO sauter de Nsent	+	+
NO danser de Nsent	+	+
NO trépigner de Nsent	+	+
NO sourire de Nsent	+	+
NO rire de Nsent	+	+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 위의 동사들은 ‘(팔짝, 펄쩍, 강충, 꺽충)뛰다’, ‘날뛰다’, ‘춤을 추다’, ‘미소를 짓다’ 와 대응된다. 이들 가운데 ‘(팔짝, 펄쩍, 강충, 꺽충)뛰다’, ‘날뛰다’ 는 ‘기쁨’, ‘즐거움’ 과의 결합만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춤을 추다’, ‘미소를 짓다’ 는 ‘기쁨’ 과 ‘즐거움’ 을 포함하여 ‘환희’ 와의 결합도 빈번하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201.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으로)(로) (팔짝, 펄쩍, 강충, 꺽충) 뛰다.

202.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으로)(로)(에) 날뛰다.

203.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의 춤을 추다.

204.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의 미소를 짓다.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
뛰다	+	+	-	-	-

날뛰다	+	+	-	-	-
춤을 추다	+	+	-	-	+
미소를 짓다	+	+	-	-	+

2. 경험주의 의지와 무관한 감정 표출

여기서 제시되는 동사들은 경험주가 느낀 감정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표출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경우에 속하는 감정 표출은 반사적 행동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아울러 경험주는 해당 감정 표출을 통제할 수 없다. 이를테면 ‘sursauter’, ‘trembler’, ‘tressaillir’, ‘frémir’, ‘frissonner’, ‘palpiter’, ‘pleurer’ 와 같은 동사들이 해당 경우에 속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205. À partir du moment où il est apparu, nous avons tremblé de joie: (...)

(Nicolas Vélimirovitch, 2004, p.24)

206. Enfant, je tressaillais de joie à l'idée que les technologies puissent aider les personnes à développer leurs capacités physiques.

(wipo.int)

207. Dire pourtant que nous avons soupiré d'aise en entrant dans ce triste et misérable hameau, et que nous avons frissonné de plaisir (...)

(Maurice Gratiot, Ligarán, 2015)

208. (...) quelqu'un voudrait être avec lui tandis qu'il pleure de plaisir (...)

(Augusto Monterroso, 2004, p.203)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 와 ‘plaisir’ 는 각각 ‘trembler de joie’ , ‘tressaillir de joie’ 그리고 ‘frissonner de plaisir’ , ‘pleurer de plaisir’ 의 형태를 통해 해당 감정들이 경험주의 의지와 무관하게 표출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joie	plaisir
NO sursauter de Nsent	+	+
NO trembler de Nsent	+	+
NO tressaillir de Nsent	+	+
NO frémir de Nsent	+	+
NO frissonner de Nsent	+	+
NO palpiter de Nsent	+	+
NO pleurer de Nsent	+	+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 위의 동사들은 ‘떨다’ , ‘떨리다’ , ‘전율하다’ , ‘설레다’ , ‘두근거리다’ , ‘눈물을 흘리다’ 와 대응된다. 해당 동사들 가운데 ‘떨다’ 와 이의 피동형 ‘떨리다’ 그리고 ‘전율하다’ , ‘설레다’ , ‘두근거리다’ 는 ‘기쁨’ 과의 결합만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다’ 는 ‘기쁨’ 을 포함하여 ‘환희’ 와의 결합도 가능하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209 .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으로)(로) 몸을 떨다.

210.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으로)(로) 몸이 떨리다.

211.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에 전율하다.

212.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에 (가슴이 + 마음이) 설레다.

213.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 (가슴이 + 마음이) 두근거리다.

214.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에 눈물을 흘리다.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
떨다	+	-	-	-	-
떨리다	+	-	-	-	-
전율하다	+	-	-	-	-
설레다	+	-	-	-	-
두근거리다	+	-	-	-	-
눈물을 흘리다	+	-	-	-	+

한편 해당 감정들은 경험주의 얼굴 또는 안색에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역시 경험주의 의지와 무관한 감정 표출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rayonner’, ‘irradier’, ‘rougir’, ‘s'illuminer’, ‘s'éclairer’, ‘pétiller’, ‘briller’, ‘resplendir’, ‘s'empourprer’, ‘s'irradier’ 와 같은 동사들이 해당 경우에 속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215. Son visage irradie de joie, la joie de voir des étrangers qui connaissent l'oeuvre de son mari et ont souhaité la rencontrer, (...)

(Gisèle Sardin, 2014, p.115)

216. (...) ses yeux pétillent de joie; il les tourne pourtant avec un peu d'inquiétude vers la mère de Sophie pour voir la réception qu'elle lui fera.

(Jean-Jacques Rousseau, 1826, p.136)

217. Et quand Elphame et Cuchulainn l'avaient félicitée, son visage avait rayonné de plaisir.

(P.C. Cast, 2010)

218. Regarde son visage s'illuminer de plaisir.

(context.reverso.net)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 와 ‘plaisir’ 는 각각 ‘irradier de joie’ , ‘pétiller de joie’ 그리고 ‘rayonner de plaisir’ , ‘s'illuminer de plaisir’ 의 형태를 통해 경험주가 느낀 감정에 따라 그의 얼굴이 변화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체로 얼굴 혹은 눈빛이 주어의 자리에 위치한다.

NO	visage		yeux	
	joie	plaisir	joie	plaisir
rayonner de Nsent	+	+	+	+
irradier de Nsent	+	+	+	-
s'illuminer de Nsent	+	+	+	+
s'éclairer de Nsent	+	-	+	-
pétiller de Nsent	+	-	+	+
briller de Nsent	+	-	+	+
resplendir de Nsent	+	-	+	-
s'irradier de Nsent	+	-	+	-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 위의 동사들은 ‘번지다’, ‘빛나다’, ‘충만하다’와 대응된다. 해당 동사들 모두 ‘기쁨’, ‘즐거움’, ‘환희’와의 결합은 비교적 자연스럽지만 ‘쾌락’, ‘낙’과의 결합은 자연스럽지 않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219. 그의 얼굴에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이)(가) 번진다(번져 간다).

220. 그녀의 (눈빛 + 얼굴)은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으로)(로) 빛난다.

221. 그들의 얼굴에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이)(가) 충만하다.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
번지다	+	+	-	-	+
빛나다	+	+	-	-	+
충만하다	+	+	-	-	+

해당 감정들로 인해 경험주의 얼굴이 변화하는 것 가운데 특히 색의 변화에 있어서는 앞서 제시한 ‘rougir’, ‘s'empourprer’와 같이 주로 빨간색 혹은 붉은색과 관련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222. Il rougit de (joie + plaisir).

223. La sérénité, l'expansion des traits, le sourire, l'éclat du regard et le bonheur qu'il exprime, quand le visage s'empourpre de joie, (...)

(Auguste Le Pileur, Ligarán, 2015)

224. Le visage de l'Allemand s'empourpre de plaisir.

(Joëlle Cabrera, 2014, p.54)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 와 ‘plaisir’ 는 각각 ‘rougir de joie’ , ‘s'empourprer de joie’ 그리고 ‘rougir de plaisir’ , ‘s'empourprer de plaisir’ 의 형태를 통해 경험주의 얼굴색이 붉게 변화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joie	plaisir
NO/Son visage rougir de Nsent	+	+
Son visage s'empourprer de Nsent	+	+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 위의 동사들은 ‘붉어지다’ , ‘상기되다’ 와 대응된다. 해당 동사들 모두 ‘기쁨’ 과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데 반하여 ‘기쁨’ 을 제외한 나머지 명사들과의 결합은 부자연스럽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225. 그는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으로)(로) 얼굴이 붉어진다.

226. 그녀는 (기쁨 + ?즐거움 + \*쾌락 + \*낙 + ?환희)(으로)(로) 얼굴이 상기된다.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
붉어지다	+	-	-	-	-
상기되다	+	-	-	-	-

### 3. 언어를 통한 감정 표출

여기서 제시되는 동사들은 경험주가 언어(말 혹은 목소리)를 통해 본인이 느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나타낸다. 예컨대 ‘déclarer’, ‘crier’, ‘hurler’, ‘chanter’ 와 같은 동사들이 해당 경우에 속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227. Et on peut savoir pourquoi tu cries de joie, (...)

(Gemma Herrero Virto, 2017)

228. Elles ont dansé et chanté de joie pour exprimer leur gratitude.

(parlcent.ca)

229. Le président-candidat a déclaré son plaisir à se retrouver dans cette région et à rendu hommage à un certain "Stéphane Camus" (...)

(atlantico.fr, 01.05.2012)

230. Je débordais de joie; j'ai même hurlé de plaisir!

(context.reverso.net)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 와 ‘plaisir’ 는 각각 ‘crier de joie’, ‘chanter de joie’ 그리고 ‘déclarer son plaisir’, ‘hurler de plaisir’ 의 형태를 통해 경험주가 언어(말 혹은 목소리)를 통해 해당 감정들을 표출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joie	plaisir
NO déclarer Dét Nsent	+	+
NO crier de Nsent	+	+
NO hurler de Nsent	+	+
NO chanter de Nsent	+	+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 위의 동사들은 ‘함성(환호성)을 지르다’, ‘노래하다’와 대응된다. 해당 동사들 모두 ‘기쁨’, ‘즐거움’, ‘환희’와의 결합은 빈번하지만 ‘괘락’, ‘낙’과의 결합은 빈번하지 않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231. (기쁨 + 즐거움 + \*괘락 + \*낙 + 환희)의 (함성 + 환호성)을 지르다.

232. (기쁨 + 즐거움 + \*괘락 + \*낙 + 환희)(을)(를) 노래하다.

	기쁨	즐거움	괘락	낙	환희
(함성 + 환호성)을 지르다	+	+	-	-	+
노래하다	+	+	-	-	+

#### 제4절 감정의 제어 여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동사들은 경험주가 본인이 느낀 감정 혹은 해당 감정에 대한 표출을 제어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이때 경험주는 자신의 감정 혹은 이에 대한 표출을 제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제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contenir’, ‘cacher’, ‘dissimuler’, ‘laisser exploser’, ‘laisser éclater’와 같은 동사들이 해당 경우에 속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233. Surtout, qu'il cache sa joie jusque dans l'avion qui le mènera ensuite en Arabie saoudite.

(lefigaro.fr, 15.10.2007)

234. Quand j'ai vu que c'était toi, je n'ai pas pu contenir ma joie!

(context.reverso.net)

235. C'est pourquoi Alain Gerber laisse exulter son ironie, laisse exploser sa joie aussi, joie débouchant sur un rire immense et salubre: (...)

(Lucien Malson, Des musiques de jazz, p.47)

236. A peine Frédéric Mitterrand a-t-il fait quelques pas, qu'il ne peut dissimuler son plaisir d'être là!

(culture.gouv.fr, 12.03.2012)

237. Devant l'assemblée, Rachida Dati laisse éclater son plaisir.

(leparisien.fr, 10.01.2009)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joie’ 와 ‘plaisir’ 는 각각 ‘cacher sa joie’ , ‘ne pas contenir sa joie’ , ‘laisser exploser sa joie’ 그리고 ‘ne pouvoir dissimuler son plaisir’ , ‘laisser éclater son plaisir’ 의 형태를 통해 해당 감정들에 대한 제어 방식을 나타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경험주는 이러한 감정들을 제어할 수도 있고 제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ne pas pouvoir contenir’ , ‘ne pouvoir dissimuler’ 와 같이 주로 부정형과 함께 사용되어 경험주가 해당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를 더 빈번히 제시한다.

	joie	plaisir
NO contenir Dét Nsent	+	+
NO cacher Dét Nsent	+	+
NO dissimuler Dét Nsent	+	+
NO laisser exploser Dét Nsent	+	+
NO laisser éclater Dét Nsent	+	+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 위의 동사들은 ‘감추다’, ‘누르다’, ‘감추지 못하다(감출 수 없다)’, ‘이기지 못하다(이길 수 없다)’, ‘참지 못하다(참을 수 없다)’, ‘주체하지 못하다(주체할 수 없다)’, ‘어쩔 줄 모르다’ 와 대응된다. 해당 동사들 가운데 ‘감추다’, ‘누르다’ 는 ‘기쁨’, ‘즐거움’ 과의 결합만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감추지 못하다(감출 수 없다)’, ‘이기지 못하다(이길 수 없다)’, ‘참지 못하다(참을 수 없다)’, ‘주체하지 못하다(주체할 수 없다)’, ‘어쩔 줄 모르다’ 는 ‘기쁨’, ‘즐거움’ 을 포함하여 ‘환희’ 와의 결합도 가능하다. 프랑스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도 경험주가 해당 감정들을 제어할 수 있는 표현보다는 제어할 수 없는 표현이 비교적 더 자주 사용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238. (기쁨 + 즐거움 + ?괘락 + \*낙 + ?환희)(을)(를) 감추다.

239. (기쁨 + 즐거움 + ?괘락 + \*낙 + \*환희)(을)(를) 누르다.

240. (기쁨 + 즐거움 + \*괘락 + \*낙 + 환희)(을)(를) 감추지 못하다(감출 수 없다).

241. (기쁨 + 즐거움 + ?괘락 + \*낙 + 환희)(을)(를) 이기지 못하다(이길 수 없다).

242. (기쁨 + 즐거움 + ?괘락 + \*낙 + 환희)(을)(를) 참지 못하다(참을 수 없다).

243. (기쁨 + 즐거움 + ?괘락 + \*낙 + 환희)(을)(를) 주체하지 못하다(주체할 수 없다).

244. (기쁨 + 즐거움 + ?괘락 + \*낙 + 환희)에 어쩔 줄 모르다.

	기쁨	즐거움	괘락	낙	환희
감추다	+	+	-	-	-
누르다	+	+	-	-	-

감추지 못하다(감출 수 없다)	+	+	-	-	+
이기지 못하다(이길 수 없다)	+	+	-	-	+
참지 못하다(참을 수 없다)	+	+	-	-	+
주체하지 못하다(주체할 수 없다)	+	+	-	-	+
어쩔 줄 모르다	+	+	-	-	+

## 제5장 결론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과 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는 해당 명사만을 통해 그의 범주를 명확히 한정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감정명사와 결합하는 동사들을 토대로 하여 감정명사의 언어학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프랑스어 감정명사로는 ‘joie’와 ‘plaisir’를, 한국어 감정명사로는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선정된 양국의 감정명사들이 각각의 언어 내에서 보여 주는 통사-의미적 특성들과 두 언어를 대응시켜 봄으로써 드러나는 특성들을 비교 관찰하였다.

감정명사와 결합하는 대표적 기능동사들 가운데 ‘être’는 ‘être en joie’의 형태를 통해 ‘joie’와의 결합은 가능하였지만 ‘plaisir’는 이와 동일한 형태를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에 ‘prendre’는 ‘prendre plaisir à + (inf. + subst.)’의 형태로 빈번히 사용되었지만 ‘joie’는 이와 동일한 형태로 실현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과 대응되는 한국어 동사 ‘느끼다’는 ‘기쁨’, ‘즐거움’, ‘쾌락’, ‘낙’, ‘환희’와의 결합이 모두 가능하였다. 프랑스어 감정명사 ‘joie’는 사동사와의 결합 또한 매우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사동사들 가운데 특히 ‘faire’는 통사 구조에 있어 두 명사 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mettre en’은 ‘mettre qqn en joie’의 형태를 통해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던 데 반하여 ‘plaisir’는 이와 동일한 형태를 허용하지 않았다. 프랑스어 사동사들과 대응되는 한국어 동사들의 경우 ‘기쁨’, ‘즐거움’, ‘환희’와의 결합은 모두 가능하였지만 ‘쾌락’, ‘낙’과의 결합은 불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어의 경우 ‘joie’와 ‘plaisir’는 결합하는 동사들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기쁨’, ‘즐거움’, ‘환희’는 결합하는 동사들이 대개 서로 일치하였으나 ‘쾌락’, ‘낙’은 그렇지 않았다.

상적 가치를 갖는 기능동사들은 점괄상, 지속상, 기동상, 종결상, 강도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 가운데 기동상을 나타내는 동사 ‘se mettre en’은 「제1절 감정명사와 결합하는 기능동사」에서와 마찬가지로 ‘se mettre en joie’의 형태로 ‘joie’와의 결합만이 가능하였다. 종결상을 나타내는 동사들 중에서도 사동사들 ‘chasser’, ‘gâcher’, ‘gâter’, ‘dissiper’가

모두 같은 통사 구조를 갖는 데 반하여 ‘priver’ 는 전치사 ‘de’ 를 동반하며 ‘S(cause) + Vcausatif + qnn + de + Dét + Nsent’ 과 같은 구조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joie’ 와 ‘plaisir’ 는 위와 같은 몇몇 차이점들을 제외하고는 결합하는 동사들이 대체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 ‘기쁨’ 과 ‘즐거움’ 그리고 ‘환희’ 까지도 결합하는 동사들이 서로 유사했으나 ‘쾌락’ 과 특히 ‘낙’ 은 앞의 명사들과 결합하는 동사들이 대다수 일치하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어에서는 기쁨과 관련된 감정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표현이 프랑스어만큼 현저하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인간의 감정은 신체를 통해 표출되기도 한다. 프랑스어의 경우 ‘joie’ 와 ‘plaisir’ 는 경험주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 없는 간에 신체적 표출을 동반하는 동사들과의 결합이 대부분 일치하였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 ‘기쁨’ 은 결합하는 동사들에 있어 ‘즐거움’ 과 가장 크게 일치했으며 그다음으로는 ‘환희’ 가 뒤따랐다. 특히 경험주의 의지와 무관한 감정 표출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눈물을 흘리다’ 를 제외하고는 ‘기쁨’ 과의 결합만이 가능하였다. 더불어 해당 감정들이 경험주의 얼굴에 드러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프랑스어에서와 한국어에서 모두 차이가 있었다. 먼저 프랑스어의 경우 해당 동사들은 ‘plaisir’ 에 비하여 ‘joie’ 와의 결합이 보다 빈번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경우 ‘기쁨’, ‘즐거움’, ‘환희’ 는 해당 동사들과의 결합이 가능하였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명사들, 즉 ‘쾌락’, ‘낙’ 은 그렇지 않았다. 또한 해당 감정들이 경험주의 안색에 드러날 경우 대체로 빨간색 혹은 붉은색과 관련되었다. ‘joie’ 와 ‘plaisir’ 는 이러한 안색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과의 결합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한국어의 경우 ‘기쁨’ 만이 가능하였다.

경험주는 본인이 느낀 감정 혹은 해당 감정에 대한 표출을 제어할 수도 있고 제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프랑스어의 경우 감정의 제어 여부와 관계없이 ‘joie’ 와 ‘plaisir’ 는 결합하는 동사들이 모두 일치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기쁨’ 과 ‘즐거움’ 은 해당 감정들에 대한 표출이 제어될 수도 있고 제어되지 못할 수도 있었으나 ‘환희’ 는 제어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들과의 결합만이 가능하였다. ‘쾌락’ 과 ‘낙’ 은 해당 동사들과의 결합이 불가능함으로써 이들은 감정의 제어 여부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강정자 (1996), 「어휘문법」 내의 기능구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박만규 (2005), 한-불 기능동사구문 대조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제20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 박만규 (2007), 술어명사 개념의 비판적 분석, 불어불문학연구, 제71집, 한국불어불문학회.
- 송근영 (2000), 불어 대명기능동사 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정혜 (2002), *La fréquence et son expression en français*, PARIS: HONORÉ CHAMPION.
- 임정혜 (2003), 시작상의 표현 수단(*Moyens d'expression d'inchoativité*), 불어불문학연구, 제56집, 한국불어불문학회.
- 임정혜 (2010), *Analyse syntaxique sur le nom de 《colère》*, 불어불문학연구, 제81집, 한국불어불문학회.
- 임정혜 (2011), 프랑스어 서술명사 《colère》 구문과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구문,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36집, 프랑스문화예술학회.
- 임정혜 (2014), *Petite étude comparative entre PEUR et COLERE*, 한국프랑스학논집, 제88집, 한국프랑스학회.
- 임정혜 (2015), *La classe du nom PEUR et ses équivalents en coréen*, 한국프랑스학논집, 제92집, 한국프랑스학회.
- 한선혜 (1990), 불어 기능동사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Anscombre, J.-C. (1995), *Morphologie et représentation événementielle: le cas des noms de sentiment et d'attitude*, Langue française, n° 105, p.40-54.
- Anscombre, J.-C. (1996), *Noms de sentiment, noms d'attitude et noms abstraits*, In N. Flaux, M. Glatigny & D. Samain(Eds.), *Les noms abstraits. Histoire et théories*, p.257-273, Lille.
- Flaux, N & Van de Velde, D. (2000), *Les noms en français: esquisse de classement*, Paris: Ophrys.
- Giry-Schneider, J. (1978), *Les Nominalisations en français*, GENÈVE: LIBRAIRIE DROZ.
- Giry-Schneider, J. (1978b), *Interprétation aspectuelle des constructions verbales à double analyse*,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tome II, fasc. 1, John Benjamins B.V., Amsterdam.
- Giry-Schneider, J. (1987), *Les prédicats nominaux en français: Les phrases simples à verbe support*, GENÈVE: LIBRAIRIE DROZ.
- Goossens, V. (2005), *Les noms de sentiment: esquisse de typologie sémantique fondée sur les collocations verbales*, Lidil 32, p. 103-121.
- Gross, G. et Vivès, R. (1986), *Les constructions nominales et l'élaboration d'un lexique-grammaire*, Langue française n° 69.
- Gross, G. (1987), *Etude syntaxique de constructions converses*, Thèse de doctorat d'état, Université Paris 13.
- Gross, G. (1989), *Les constructions converses du français*, GENÈVE: LIBRAIRIE DROZ.
- Gross, G. (1996a), *Les expressions figées en français: noms composés et autres*

- locutions*, Ophrys.
- Gross, G. (1999), *Verbes supports et conjugaison nominale*, Revue d'études francophones.
- Gross, M. (1975), *Méthode en syntaxe*, Paris: Hermann.
- Gross, M. (1981), *Les bases empiriques de la notion de prédicat sémantique*, Langages, n° 63, Larousse, Paris.
- Leeman, D. (1995), *Pourquoi peut-on dire Max est en colère mais non \*Max est en peur? Hypothèses sur la construction être en N*, Langue française n° 105, p.55-69.
- Michele De Gioia (2015), *Le Lexique-Grammaire. Introduction à la méthode*, Paola Paissa; Françoise Rigat; Marie-Berthe Vittoz, Dans l'amour des mots. Chorale(s) pour Mariagrazia, Edizioni dell'Orso, p.299-309.
- Mel'čuk, I et al. (1984),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Recherches lexico-sémantiques 1*,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Mel'čuk, I. (2003), *Collocations dans le dictionnaire*, Observatoire de linguistique Sens-Texte, Université de Montréal.
- Mel'čuk, I. (2015), *Un modèle linguistique fonctionnel: le modèle Sens-Texte*, Observatoire de linguistique Sens-Texte, Université de Montréal.
- Polguère, A. (1998), *La Théorie Sens-Texte*, Observatoire de linguistique Sens-Texte(OLST), Département de linguistique et de traduction, Université de Montréal.
- Păstae, Oana-Maria (2014), *Étude des collocations verbales au travers le noms joie*, Language and Discourse 1, p.231-238.
- Piروز Azadeh (2016), *Les noms du champ sémantique de la joie en français et en persan*, Sciences de l'Homme et Société.
- Tutin, A., Novakova, I., Grossman, F., Cavalla, C. (2006), *Esquisse de typologie des noms d'affect à partir de leurs propriétés combinatoires*, Langue française n° 150, p.32-49.

#### 【사전류】

- 표준국어대사전, 1999, 두산동아.
- 프라임 불한사전, 1998, 두산동아.
- 새한불사전, 한국외국어대학 출판부.
- 옛센스 한불사전, 민중서림.
- [www.cnrtl.fr](http://www.cnrtl.fr).
- [www.larousse.fr](http://www.larousse.fr).